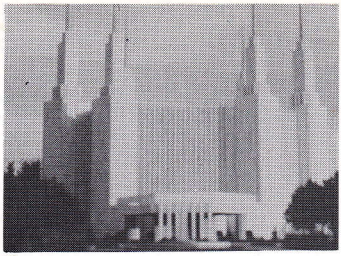
성도의 벗 10
1983

3

56



12

성도의 벗 10 198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러셀 밸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랙스 디 피네가
찰 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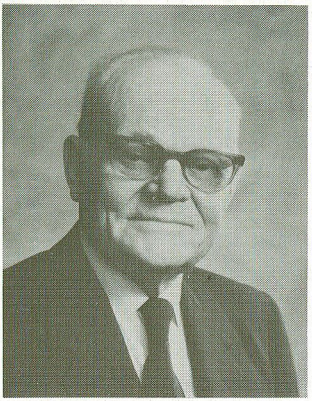
차 례

결심과 헌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한 사람의 가치 ……조셉 비 워스린 장로…… 7
한 가정 복음 교사의 업적 ……15
현재의 그 ……이베트 트레이시……18
침례 후의 6일……캐롤린 톰프슨……19
질의 응답 ……22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 주셔서 기쁩니다 ……사뮤엘라 알 호킨스……24
주님의 등불……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27
"레 파웨스트"에서 시작됨 ……빌립 베노르……39
곰 발자국 ……딘 엘 라슨 장로……42
안데스 산맥 인디언의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 ……커크 매글비……47
몰모나드 ……52
친구가 친구에게 ……드웬 제이 영 본부 초등 협회 회장……53
왜 우리에게 금식 주일이 있는가……셀리 군넬……55
해외 소식 ……58
지역 소식 ……59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18호, 제19권 제10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3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데이비드 씨 버틀러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ㅇ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620KO PRINTED IN SEOUL, KOREA 10/83 International magazine

© 1983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결심과 헌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결심과 헌신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나는 성경과 몰몬경에 언급되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과 교회의 초기에 사셨던 헌신적인 성도들을 생각했읍니다. 그들은 모두 고귀하고 고상한 대업을 위하여 몸바친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들이었읍니다. 우리들도 모두 그들과 마찬가지로 헌신함으로써 우리들 개개인의 능력이 닿는 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표준에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소망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할 확실한 성품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모사이야의 아이들이 따랐던 길보다 우리가 따라야 할 더 훌륭한 길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대로 내가 다 해보았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겠읍니다만 나에게는 그들의 모범이 그것을 본받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직접 증거하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읍니다.

몰몬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졌더라. "그 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앨마서 17 : 2-3)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물을 움직이는 위대한 권세이며 이것이 없

으면 다른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몸바쳐 공부했읍니다. 오늘날 말일성도 만큼 배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백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사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읍니다. "연구하며 공부하며 모든 양서를 통독하라. 여러 나라의 언어와 방언을 통달하며 여러 국민과 친숙하라."(교성 90 : 15)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교성 131 : 6) 때문인 것이며 즉, 이곳에 언급되는 무지란 진리에 대한 무지를 말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인간이 지식을 얻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덧붙여 말했읍니다.(*교회 정사*)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교성 93 : 36)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성 130 : 18-19)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역사의 지식과 여러 국가와 왕국의 지식과 하나님과 인간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얻으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 이 모든 것은 시온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교성 93 : 53)

이제 잠시 동안 완전한 결심…완전히 헌신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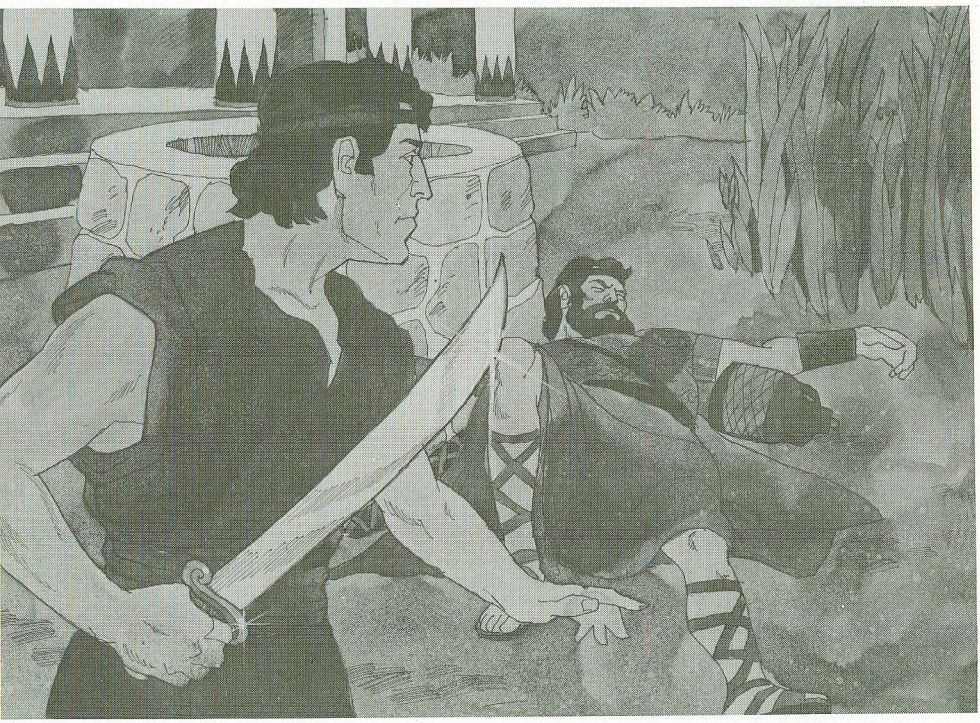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교성 4 : 2)

아마 여러분은 니파이의 생애에 있었던 다음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부친이 형들에게 그들의 계보가 적힌 동판을 가져오도록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못마땅히 여겨 불평을 했읍니다. 그러나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 : 7)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기록을 가져오는 책임이 레이맨에게 돌아갔읍니다. 그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가서 빈손으로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속의 땅으로 내려가 금은 보화를 모았으며"(니파이일서 3 : 22) 그것으로 동판을 사려 했으나 레이맨은 금은 보화를 빼앗았으며 니파이 형제들은 모두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쳐야 했읍니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왔을 때 레이맨과 레뮤엘이 몽둥이로 니파이를 때렸읍니다. 그들은 판을 갖지 않고 그냥 부친에게 돌아갈 작정을 했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타이른 후에도 고집을 부렸으나(니파이일서 3 : 28-31 참조)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도록 하자. 보라, 주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하시니, 레이맨과 그의 오십이나 설혹 수만의 부하가 있다 할지라도 어찌 그보다 강하시

니파이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의 형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놋쇠판을 얻기 위하여 레이반을 죽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헌신적으로 주님께 순종했다.



지 아니하겠느뇨?"(니파이일서 4 : 1)

니파이는 가서 판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나중에 니파이가 배를 짓기 시작하고 그의 형들의 반대를 슬퍼하자 그들은 니파이의 용기가 꺾인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니파이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씀으로 대답했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만사를 다 행하라고 이르신 것이라면 내가 능히 이룰 수 있으리라."(니파이일서 17 : 50)

니파이는 완전히 결심하고 헌신했으므로 그의 임무를 성취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이름이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였"(니파이이서 25 : 20)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이전의 모든 지식은 이것과 비교할 때 무의미해졌읍니다. 그는 완전히 개심했기 때문에, 그때 그 장소에서 복음 메시지를 그

의 이웃에게 전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읍니다.

앨마의 경우도 똑같았읍니다. 그는 개심한 순간부터 이렇게 말했읍니다.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내가 맛본 무한한 기쁨을 저들이 또한 맛보게 하며, 저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태어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해 왔느니라."(앨마서 36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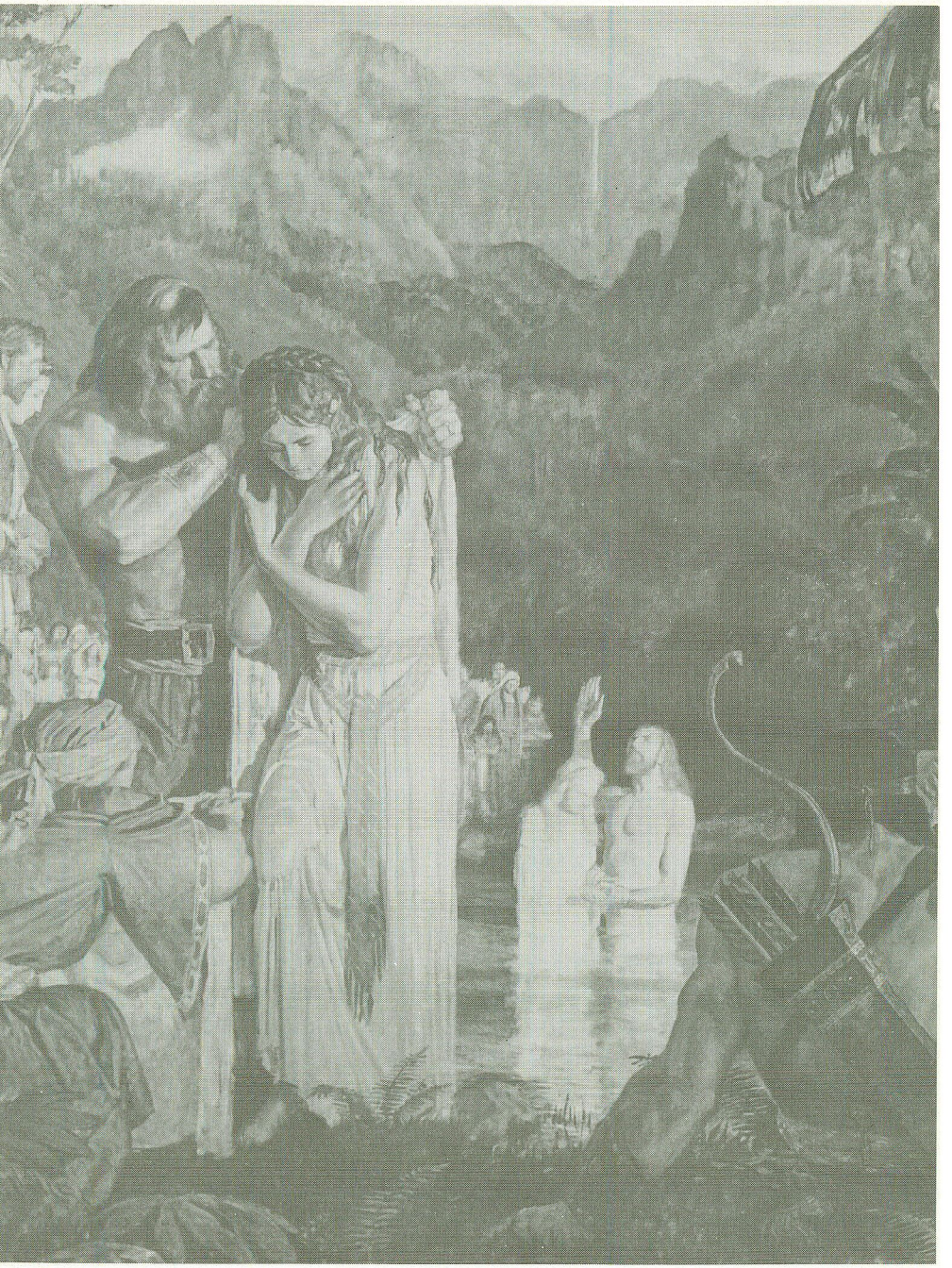
그의 업적의 기록은 이 말씀이 참됨을 증거해 줍니다. 그는 실제로 국가 정부의 책임자인 대판사의 직을 사임했읍니다. "앨마가 이같이 행함은 저의 백성, 곧 니파이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저들의 임무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자만과 교활함과 불화를 막으려 하였으니, 이는 오직 순수한 간증으로서만 저들을 다스려 돌아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이라."(앨마서 4 : 19)

지금 나는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일을 모두 버리고 모든 시간을 성역에 바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하며 이것이 이 세상에서 화평과 행복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지식과 간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 공부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저녁 기도와 아침 기도와 정직하게 복음 원리에 일치하게 생활함으로써 복음의 화평과 영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또 구체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성신의 권세와 도움으로 그 거룩한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고 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개심하고 이 진리에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의 옳고 그름은 계속해서 이 진리의 빛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오늘날의 복잡한 의문과 문제에 관한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레크리에이션에 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향하여 개심한 사회에서는 일요일 휴업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하여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낙태법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외설 문학이나 도색 영화나 기타 저열한 레크리에이션이 없을 것입니다. 인종적인 편견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구원의 계획의 빛에 비추어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것은 없읍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하늘에서 인간의 구속과 하나님 면전에서 인간이 구원받고 승영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한 이 위대한 계획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생활하도록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필요한 결심을 하고 그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의 성격이 어떻든지 우리는 구원의 계획의 정신을 알고 간직하며 거기에 일치하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봉사하는 사람과 기타 어떤 방법으로 접촉하는 사람이든지 모두 그 진리를 찾도록 도와 주는 데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읍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들어서며 그 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한 가지 일은 그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으로 선언하신 것을 철저하게 잘 아는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기도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와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힘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읍니다. 그가 지상에서 성역을 행하시는 동안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위기에 접하여 기도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겪으신 고통의 기사를 살펴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았으나 늘 그대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분명하게 행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고 그의 계명에 엄격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훈계와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날 따르라." 주 말씀하니,
주 발자취 따라가세,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와 하나되리.
(*찬송가*, 77장)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날 말일성도보다 더 강하게 배우겠다는 결심을 한 백성은 없읍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과 간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3. 우리의 결정과 행동의 옳고 그름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계획의 빛에 비추어 결정해야 합니다.
4.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토론 유의 사항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헌신에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을 이야기한다. 가족이 그들의 느낌을 함께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토론이 더 잘 될까? 결심과 헌신에 관련하여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

한 사람의 가치

비활동 회원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가정복음 교사용 지침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읍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할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누가복음 15 : 4-7)

이 비유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비친 각 개인의 위대한 가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읍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수많은 세력이 연합하여 개인을 중요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느끼게 하며, 때로는 정부의 서류철이나 대학교 명부나 은행 장부에서 단지 번호로서만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인간 생활은 아주 작은 것으로써 파도 꼭대기의 물거품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읍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한 위치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밝혀 주신 바에 의하면 인간의 가치야말로 이 세상의 어떠한 과학적인 발견이나 지식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누가복음 15 : 6~7)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그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성 18 : 15-16)

평생에 한번도 본 일이 없는 그런 밀의 대 풍작을 바라보는 한 농부의 경우를 그리고 있는 현대판 비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그는 그 수확으로부터 생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보화 이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었읍니다. 그는 매일 들에 나가서 그 황금 물결같은 곡식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집으로 와서는 그의 가족에게 자신이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읍니다.

이 농부에게는 병에 걸린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에게 그 익어가는 넓은 밀밭을 볼 수 있게 밭으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읍니다. 아버지는 승낙하고 아들에게 옷을 잘 입히고는 들로 데리고 나갔읍니다. 아버지는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보화에 열중한 나머지 자기 아들이 곧 자기 옆에서 없어진 것도 몰랐읍니다. 얼만큼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는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아들의 키보다 훨씬 큰 밀밭 사이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읍니다. 그 당황한 아버지는 아들을 찾지 못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급히 마을로 달려갔읍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부탁에 응하여 큰 원을 그리며 손을 잡고는 천천히 앞으로 밀집한 밀을 밟으며 걸어나가 마침내 그 소년의 시체를 발견했읍니다. 아버지는 상심해서 그에게 그렇게 소중한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읍니다. 그는 금전적인 소유물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한 개인의 가치를 깨달았읍니다.(시드니 에이치 알렉산더 이세, "오늘날의 위기"라는 *감동적인 연설*에서, 1963년 1월 1일, 185-86 페이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 개인의 큰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자를 구원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수많은 젊은이와 그 이외에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내보내는 데 막대한 돈과 시간을 쓰고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모든 사람을 찾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비활동 회원을 찾고 다시 활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을 찾는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양을 찾는 것은 잃어버린 회원의 마음과 가슴에 있는 충동과 동기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고 찾기가 쉽습니다. 잃어버린 회원 가운데는 인생의 복음 계획에 있어서 영적인 가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흔히 "비활동"이라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교회 회원의 소중한 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읍니다.

비활동 회원이 교회와 최초로 접촉하는 것은 감독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지도자의 지시하에 일하는 가정 복음 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읍니다. 이 중요한 가정 복음 교육 의무에 대한 나의 관심은 내 인생에서 일찍 시작되었읍니다.

준비와 태도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었을 때 나에게는 훌륭하신 감독이 계셨읍니다. 그분의 이름은 매리온 지 롬니이며 현재 대관장단의 일원이십니다. 롬니 감독님은 나의 동반자와 나에게 가정 복음 교육을 지명하시면서 겸손해지는 것과 기도하는 것 및 깊히 생각하게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가정 복음 교육 지명에 있어서 발견할 기회에서 큰 기쁨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읍니다. 우리는 다섯 가정을 방문하도록 부탁받았는데 그 중에 세 가정은 비활동이었읍니다. 이 가정 복음 교육 지명은 롬니 감독님에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분의 열성과 관심이 곧 우리의 것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그의 주의깊은 가르침은 감명 깊었으며 우리는 그의 영감받은 훈계를 주의깊게 따랐읍니다. 여러 차례 방문한 다음에 우리가 담당한 비활동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은 매우 우호적인 상태로 발전했고 궁극적으로 모두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 되었읍니다.

롬니 감독님은 이 가정 복음 교육 지명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도록 해주셨읍니다. 그는 우리가 주의깊게 준비하고 우리의 방문의 결과에 관하여 진지하게 되도록 격려하셨읍니다. 그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열의와 신앙이 발전하도록 도와 주셨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임무든지 활기없게 기계적으로 응해서는 실패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는 비활동 회원에 대한 성공적인 가정 복음 교육에 있어서 첫째되는 필수적인 요인은 가정 복음 교사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읍니다. 가정 복음 교사 자신의 준비와 헌신과 훌륭한 태도와 솔선 수범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정

몇 년 전에 나의 친구 한 사람이 스테이크 선교사로 부름받은 일이 있읍니다. 그의 직업은 큰 수퍼마켓을 관리하는 것이었읍니다. 그의 고객 가운데 부자이며 그 지역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나이 많은 여자 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내 친구는 그 부인의 마음에 들도록 정성을 다했으며 그녀의 고객으로의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녀의 요청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노력했읍니다. 그는 그녀의 식품 잡화류를 그녀의 차에 실어 주고 문을 열어 주고 집으로 갈 때 전송하는 것을 첫째 원리로 삼았읍니다. 그는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했으며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 보였읍니다. 그 부인은 그가 다정하게 호의를 보이고 도와 주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읍니다.

그는 어느 날 밤 그의 스테이크 선교사 동반자와 함께 가가 호호 방문을 하는 중에 우연히 그녀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는 깜짝 놀랐읍니다. 그 부인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으나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문을 활짝 열고 기쁘게 "아이 참 반가워라"하고 큰 소리로 말하며

"내 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흔히 '비활동'이라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 관한 것입니다."

반겼읍니다.

그는 그날 밤 잡화 상인으로서 온 것이 아니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로서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 부인은 자신에게 종교가 있으며 수 년 동안 몰몬 교회를 대표해서 오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다고 대답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는 다르지요. 들어오세요. 훌륭한 기독교 신사인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어요."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읍니다. 그 이야기를 다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녀의 마음이 이 훌륭한 말일성도에 의해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했으며 그 사실을 기뻐했다는 것만 말씀드리면 족할 것입니다.

그의 경험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같이 보이는 사람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두번째 원리를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종교와 교회에 관련된 주제에 관하여 언급하기 전에 우정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처음에 좋은 느낌을 기초로 해서 쌓은 관계는 두려움과 불확실감과 반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비활동 회원을 다시 찾는 이 즐거운 목표에 있어서 세번째 기본 원리는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밝히고 있읍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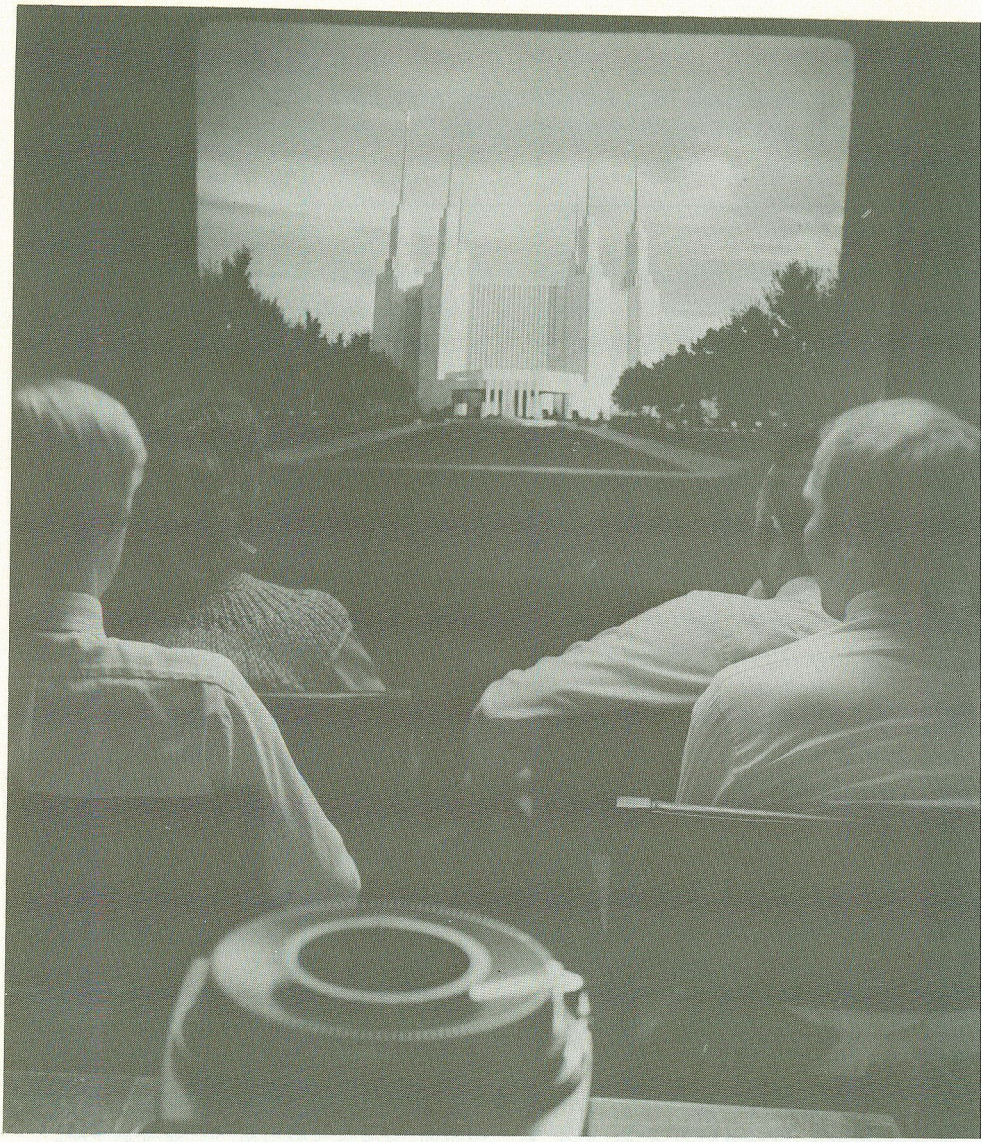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전도서 3 : 1-2)

나의 스테이크 선교사 친구는 확신을 주는 또 다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읍니다. 사람은 돌도 아니고 별도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의사는 내 친구가 가정 복음 교사로서 그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 이를 거부했읍니다. 이 의사는 이름만 교회 회원이었읍니다. 그의 문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원히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았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내 친구가 병원을 방문하고 있던 중 한 침대에서 그 완고한 의사를 보고 놀라고 슬퍼했읍니다. 그는 겸손하게 용기를 내서 "우리가 축복을 해드리면 어떻겠읍니까?"라고 물었읍니다.

그 의사는 약하고 낙담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그 어느 것보다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동의했읍니다. 내 친구는 바로 이것이 그 이전에 비활동적이었던 이 형제를 다시 활동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했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만 한다면 만사에 때가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우리가 변화를 좀더 잘 받아들이게 하거나



우리의 영적인 우선 순위를 다시 평가하게 해주는 사건이 있읍니다. 비활동 회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로서 우리에게 배정된 비활동 가족은 구체적으로 어떤 곤경에 직면해 있거나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자녀의 생활에 있어서 뜻깊은 사건이 일어날 때 좀더 수용적이 될 수 있읍니다. 그들과 늘 가까이 하며 올바른 때가 이를 때 그들의 생활에 영적인 영향을 줄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개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영적인 개심이야말로 한 사람이 활동화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일차적인 노력을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담당한 비활동 부부를 와드나 스테이크 단위로 열리는 신전 준비 세미나에 초청하도록 정원회 지도자 및 감독과 협의하십시오. 지명받은 가족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고 방문하는 동안 질문에 대답하여 주고 그들의 발전을 격려해 주고 철저한 뒷바라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담당한 가족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꺼린다면 그들의 가정에서 주례로 복음 원리에 관하여 가르칠 기회를 갖도록 그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런 경우 가정 복음 교사는 복음 원리에 관하여 주의깊게 조직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이 모임을 간단하게 하고(30분 내지 45분) 교과 과정으로는 *신전 준비 세미나* (PBMPO/O/KO), 표준 선교사 토론 또는 *복음 원리*(PBICO245KO)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그들의 가정에서 복음을 배울 기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약속을 하게 하거나 봉사를 하도록 하거나 혹은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를 강요하지 않은 가운데 가정에서 가르치십시오. 가정 복음 교사가 가르치는 진리 안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자신의 지식이 커지며 영적인 힘이 성장한다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복음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울수록 스스로 자신의 목표와 결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가족이 영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가정에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읍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활동화되면 대체로 온 가족이 활동화 되도록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의 방문과 가족과의 활동에 관하여 아버지와 협의하십시오. 그의 인도를 부탁하고 그의 요청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가정에 있을 때는 누가 기도할 것이며 어떤 주제로 가르칠 것이며 어떤 제언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의 지시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여

적절한 경우에는 지명받은 가족이 교회의 한 조직에서 봉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십시오. 비활동 회원에게는 가정 복음 교사의 사랑과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그들의 직접적인 봉사와 참여를 통하여 성장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정원회에서는 활동적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정규적으로 정원회 회장단에게 보고하며 인도하는 적절한 위원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각 위원회에는 활동적인 2~3명의 형제 이외에도 비활동적인 형제 한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부탁할 수 있읍니다. 교회에 참석하라는 일반적인 요청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비활동 회원이 그들의 관심에 일치하는 위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히 있읍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우정을 쌓고 복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영적인 교회 분위기에서 자신감이 증진 될 수 있읍니다.

인내

비활동 회원에게는
가정 복음 교사의
사랑과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그들의 직접적인 봉사와
참여를 통하여
성장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족을 활동화시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봉사해야 할 수도 있읍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잠언 18 : 19) 사람은 각자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발전하며 어떤 사람은 활동화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좀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이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영적인 인도

한 가지 활동 촉진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들이 각각 비활동이 된 이유는 그들 개인이 서로 다른 것 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들을 활동화시키기 위한 계획은 그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주의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비결을 알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교회 회원이 많이 있읍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비활동 회원과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교회 회원과 조직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비활동과 무관심의 주기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아들과 딸에게 반복되는 주기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를 두 지점에서 동시에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좀더 많은 우리의 젊은 남녀에게 손길을 뻗쳐서 그들이 계속해서 충실하도록 꼭 붙들어 주고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거룩한 신전에서 결혼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손길을 뻗쳐 그들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77년 9월 30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조직을 통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손길을 뻗칠 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낙담한 사람에게 잠자리와 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접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스펜서 마이클 프리즈, "인간적인 접촉" *영감의 보화*, 랄프 엘 웃즈 편, 뉴욕 : 토마스 와이 크로웰사, 1951년, 327페이지) 인간적인 접촉이 모든 효과적인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시작 지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사나 배우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접촉"도 또한 필요합니다.

근면하게 효과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예수님이 설명하신 기쁨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

한 가정 복음 교사의 업적

제이 라이먼이 그 자매(루스 엘리어트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합시다.)를 담당하는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받았을 때 그 자매는 그 와드에 온지 얼마 안되었으며 라이먼은 그 자매를 몰랐읍니다. 다른 와드에 살고 있는 그녀의 딸과 그 이외에 그녀에 관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라이먼 형제는 처음으로 엘리어트 자매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그녀에 관하여 조금 알 수 있었읍니다.

엘리어트 자매는 훌륭한 이웃이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읍니다. 그 아파트는 어느 가정의 침실을 개조한 것으로 외부로 통하는 독립된 문이 있었읍니다. 벽장을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작은 난로와 싱크대를 설치해 두었읍니다. 그 방에는 겉에 천을 먼 부러진 의자가 있었으며 엘리어트 자매는 침대에 있을 때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시간을 이 의자에 앉아서 보냈읍니다. 그 자매는 좀처럼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으며 외부에 대한 관심이 없었읍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세월을 보내고 있었읍니다.

이 자매는 담배를 피웠으며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읍니다. 여러 해 동안 의사가 여러 가지 약을 처방했으며 이 자매는 계속해서 많은 약을 먹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외모와 태도와 말투는 자신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불만스러운 태도를 반영하고 있었읍니다. 그는 자기 부친과 그 외 여러 사람에 대하여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교회 회원과 관련된 불미한 사건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합해져서 그녀의 인생은 즐겁지 않았읍니다. 라이먼 형제는 이 괴로움 많은 자매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읍니다.

그녀의 외모와 태도와 말투는
자신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불만스러운 태도를 반영하고 있었읍니다.
그녀는 자기 부친과
그외 여러 사람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읍니다.

그녀의 가정 복음 교사로 부름을 받은 직후에 기회가 왔읍니다. 그 집 주인이 아파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어트 자매는 페인트 일을 하기 전에 그녀의 가구를 마당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안되었읍니다. 라이먼 형제와 와드의 대제사 그룹 지도자가 가구를 밖으로 옮겼으며 페인트 칠이 마른 다음에 다시 안으로 옮겨 주었읍니다. 그들은 엘리어트 자매가 얼마나 적게 소유하고 있으며 그녀의 형편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알고 슬펐으나 그런 방법으로 밖에는 봉사할 길이 없었읍니다.

한번은 엘리어트 자매가 가족을 방문하러 며칠 동안 떠나 있는 동안 라이먼 형제와 그의 아내인 버지니아 자매가 그녀의 아파트에 가서 그 부러진 의자를 가져왔읍니다. 그 의자의 골격은 훌륭했으나 의자 속을 새로 채워 넣고 천을 대어야 했읍니다. 버지니아는 그 의자에 새 천을 덮는 일을 굉장히 잘해 놓았으며 엘리어트 자매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 아파트에 갖다 놓았읍니다.

라이먼 형제와 그의 후임 동반자는 정규적으로 이 자매를 방문했으며 라이먼 부부도 자주 가서 방문하고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간단한 기도를 드렸읍니다. 차츰 엘리어트 자매는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서로의 생활에 깊은 관련을 맺

기 시작했읍니다.

어느 봄 날 라이먼 부부는 그들의 새 친구가 필요한 수술을 받기 직전에 전화를 걸거나 혹은 직접 만나서 많은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냈으며 교회와 병원과 시장에 그녀와 함께 갔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접촉했읍니다. 어떤 시기에는 그 자매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전화를 걸곤 했읍니다. 그 자매는 외로웠으며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으며 그들은 어떻게든 그 공허한 부분을 채워 주고 그녀에게 필요한 가까운 친분 관계를 제공할 수 있었읍니다.

엘리어트 자매가 수술을 받을 때 라이먼 부부는 휴가 중이었으나 격려와 힘을 주는 말을 해주기 위하여 병원에 있는 그 자매를 방문했읍니다. 그 자매는 신권 축복을 받았으며 주님이 자신을 지켜 보시리라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술이 끝난 후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으며 성공적으로 해냈읍니다. 그녀의 손자가 선교 지역으로 가기 전에 담배를 끊으시도록 부탁드렸으며 이 자매는 주님의 도움과 선교사인 손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강한 소망을 통하여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읍니다.

수 개월이 지나는 동안 엘리어트 자매는 새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외부에 대한 흥미를 발견했읍니다. 그녀의 교회 참석이 개선되었으며 십일조를 내기 시작했읍니다. 라이먼 형제는 그녀가 십일조를 결산할 때 함께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가고 싶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라이먼 형제가 그 자매에게 준비를 갖추도록 부탁했으며 같이 갔읍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자매는 행복한 모습이었읍니다. 그 자매는 평생 처음으로 완전한 십일조를 낸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되었읍니다. 불만은 사라졌으며 겸손하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바뀌었읍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했읍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그들에 대한 어머니의 더 커진 인내심과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 어머니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었읍니다.

마침내 이 훌륭한 자매는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예쁘게 꾸미고 그 아파트 건물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었읍니다. 새로운 의사는 그녀가 약에 의지하는 것을 고쳐 주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녀 자신의 힘에 의지하도록 종용했으며 그런 목적을 위하여 약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읍니다. 그 자신의 성실한 노력과 축복을 주고 힘을 주는 신권의 능력을 통하여 약을 끊는 힘든 시기를 견디어 낼 수 있었읍니다.

이 "새 사람이 된" 엘리어트 자매에게 온 축복은 매우 많으며 거기에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거룩한 신전 의식에 참여한 것이 포함됩니다. 라이먼 형제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나는 그 자매님의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내 것이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나는 '새로운' 엘리어트 자매와 마찬가지로 '옛날의' 엘리어트 자매를 사랑했으나 이제는 그녀의 빈곤하고 쓸쓸한 생활로 인하여 슬퍼해야 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제 그녀의 생활은 복음 생활에 따르는 축복으로 풍요하게 되어 기쁨이 가득 넘칩니다." *

현재의 그

이베트 트레이시

우리 부친은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재능이 많은 분이었읍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사셨읍니다. 그러나 내가 어릴 때부터 부친은 술을 아주 많이 드셨으며 한번도 술이 깬 적이 없는 것같이 보였읍니다. 나는 그가 정규적인 직업을 잃고 그저 술 살 돈만 벌기에 적합한 한번에 며칠씩 일하는 일시적인 직장에서 일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의 음주는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부친이 술을 끊을 힘을 찾도록 자주 기도했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친은 돌아가시기 4개월 전에 술을 끊었읍니다. 그는 술을 완전히 끊었으며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애썼읍니다. 그는 자기 직장까지 다시 얻으려고 했읍니다. 그가 돌아가신 수개월 후인 어느 날 밤 나는 부친이 어떤 단에 앉아 있는 꿈을 꾸었읍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었읍니다. 그의 얼굴은 빛이 났으며 매우 행복하게 보였읍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모르는 몇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었읍니다. 그 꿈은 나를 감동시켰으며 지상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생활한 부친이 어떻게 화평스럽고 행복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았읍니다. 그는 우리 어머니에게 여섯 명의 어린 자녀를 남겨 두었으며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부친에 관하여 물으면 나는 그가 나쁜 아버지였다고 대답하곤 했읍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밤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내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부친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읍니다. 그는 술이 취해 있었으며 매우 창백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에게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느냐고 힐문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읍니다. 나는 부친에게 우리를 놔 두고 가라고 고함질렀읍니다. 갑자기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사람도 나의 부친이었으나 이번에는 깨끗한 옷을 입었으며 얼굴은 빛나고 있었고 그의 눈은 평화스러운 눈길을 띄고 있었읍니다. 그는 옆의 사람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 사람은 옛날의 나며, 이 사람은 지금의 나다."

나는 이 꿈이 나의 첫번째 꿈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 부친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느낀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읍니다. 그는 술 문제로 싸우고 있었던 그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는 회개했읍니다.

그때부터 나는 부친이 화평 중에 있으며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주 기뻐했읍니다. 또한 나는 우리 각 개인이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은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읍니다. 우리의 죄와 불행이 아무리 깊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읍니다. 구세주가 대속하심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었읍니다. *

침례 후의 6일

캐롤린 톰프슨

플로리다주 북서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보낸 나의 어린 시절은 어려운 생활에 대한 회상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내가 만 6세가 되었을 때 부친이 사고로 시력을 잃었읍니다. 이미 어머니가 안계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에서 요리하고 가사를 돌보는 책임을 맡아야 했읍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견디어 냈읍니다. 나는 내가 속한 교회에 다니기는 했으나 정말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주 빠졌읍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불과 17세의 나이로 오빠가 군인으로 월남에 갔읍니다. 그 다음 해에 부친이 또 다른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셨읍니다. 자동차 밑에서 만신 창이가 된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 나였고 나는 거의 미칠 것 같았읍니다. 그 후 여동생과 나는 군 지방 법원을 찾아갔으나 우리를 맞아들일 양부모의 가정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아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여동생이 결혼했으며 조금 후에 나도 벤과 결혼했읍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갓 결혼한 젊은 부부를 위한 좋은 기회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벤의 삼촌이 북부로부터 와서 인디아나주로 이사가도록 설득했을 때 우리는 따라 나섰읍니다. 우리는 오랫 동안 행복하지 못했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1,600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홀로 외롭게 살았읍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 나는 여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그가 아기를 낳으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읍니다. 나는 이미 결코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인생을 매우 증오했으며 어린이를 이 세상에 낳아서 나처럼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곧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아련한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읍니다. 나에게는 내가 소유하고 집착할 나 자신의 소유인 어떤 것이 필요했읍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음을 바꾸고 어머니가 되는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읍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겁이 났으나 좀 흥분하기도 했읍니다.

나는 임신 기간 내내 몹시 아팠으며 때로는 내 결심에 대한 회의심이 생겼읍니다. 그러나 간호원이 정말 처음으로 내 팔에 아기를 안겨 주었을 때 더 이상 의심이 생기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그 아기를 빌이라고 이름지었읍니다. 그는 매우 잘 생겼으며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읍니다. 그는 내 일생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것 즉 나의 생활 전부가 되었읍니다. 나에게는 남편도 있었으나 그때까지의 내 경험으로 인하여 이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그 영구성에 관해서 막연한 (이 경우에는 근거없는) 불안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의 경우에는 확신을 갖고 있었읍니다. 빌은 나의 것이었읍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져서 마침내 이동

식 주택을 살 수 있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일성도 가정의 옆에 있는 이동식 주택 주차장으로 이주했던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읍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했으며 자주 같이 교회에 가자고 했읍니다. 나는 우리 아기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가겠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탁하는 것이 기뻤읍니다.

우연히도 우리가 처음 참석한 모임은 금식 간증회였읍니다. 나는 이 새로운 경험에 약간 당황했으나 남편은 그렇지 않았읍니다. 그는 즉시 개종했읍니다. 우리는 다음 두 주일 동안에 두 번 선교사 복음 토론을 공부했읍니다. 그리고는 1970년 2월 28일 토요일에 세 토론을 더 하고 접견하고 그날 밤에 침례받았읍니다.

6일 후인 1970년 3월 6일에 나의 모든 세상이 떨어져 나갔읍니다. 우리 아기가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읍니다. 그가 죽어 가고 있었읍니다.

나는 내가 살아 있는 한 그 무서운 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3월 5일은 매우 아름다운 날이었읍니다. 찬란한 햇빛이 비쳤으며 모든 세상이 우리 세상인 것 같이 보였읍니다.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한번도 가져 보지 못했던 안전과 건강과 사랑과 이제는 교회까지 갖고 있었읍니다. 어린 빌은 이제 막 생후 19개월이 되었으며 그날 밤 그는 우리가 그의 할머니를 위하여 베푼 생일 파티에서 매우 재미있게 놀았읍니다. 그는 매우 행복했으며 뛰고, 놀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읍니다. 그리고는 3월 6일 아침 일찍 나는 숨이 막혀서 우는 소리에 잠이 깨었읍니다. 내가 그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눈물이 흥건해서 누워 있었읍니다. 그는 거의 시커멓게 색깔이 변했으며 입에선 거품이 나오고 있었읍니다. 그는 손을 대기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작은 몸을 안기 위해서 담요로 둘러싸야 했읍니다.

우리는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으며 의사들이 뛰어다니며 각종 검사를 하고 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미친듯이 일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읍니다. 마침내 의사가 와서 빌의 체온이 42도가 넘는다고 말했읍니다. 그들은 우리 아기의 그 무서운 상태의 원인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그 주에서 최고의 소아과 전문의를 부르러 보냈읍니다. 그러나 그 전문의도 어쩔 수 없었읍니다. 그날 아침 늦게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으며 열이 내리지 않으리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나의 온 세계가 죽어 가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분명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나는 어린 아이였을 때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외로운 혼자의 몸이 된 것같이 느낀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남편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기 위하여 불려 나갔으며 나는 완전히 홀로 떨어져 있었읍니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기가 몇 시간밖에 더 살지 못하리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는 그의 방으로 갔읍니다. 그는 매우 작고, 매우 잘 생겼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읍니다.

나는 감각이 마비된 상태로 그의 침대 옆에 앉았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 즉, 주님의 집에서 우리 가족이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인봉된 그날에만 느꼈던 것과 같은 완전히 화평스러운 느낌이 들었읍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굉장한 힘을 갖고 나에

게 닥쳤으므로 나는 놀라서 몸을 떨었읍니다. 그리고 나는 위를 올려다 보고 우리 와드의 대제사 한 분이 문에 서 있는 것을 알았읍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몰랐으나 왜 그가 거기에 있는지는 알았읍니다. 나는 팔을 뻗쳐서 침대에 있는 빌을 안아 올렸읍니다. 그는 내가 손을 대자 눈을 떴읍니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고는 미소를 지었읍니다.

나는 빌이 숨이 막혀서
우는 소리에 잠이 깨었읍니다.
내가 그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눈물이 흥건해서
누워 있었읍니다.
그는 거의 시커멓게
색깔이 변했으며
입에선
거품이 나오고 있었읍니다.
그는 손을 대기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작은 몸을 안기 위해서
담요로 둘러싸야 했읍니다.

문에 서 있던 형제가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월터즈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기에게 병자 축복을 하라고 저를 보내셨읍니다." 빌은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호원들이 한번에 한 사람 이상의 방문객은 방에 못 들어가게 했읍니다. 그래서 월터즈 형제는 그의 동반자를 복도에서 기다리게 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는 빌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에게 건강과 힘을 축복했으며 그가 바로 그날 완전히 나으리라고 축복했읍니다.

조금 후에 의사가 서류를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시체 해부 동의서였읍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다시 오겠다고 말했읍니다. 10분 후에 나는 우리 아기가 완전히 나아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는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대에서 기어 나와서 보통 때와 똑같은 속도로 그의 작은 다리가 움직이는 한 최고의 빠른 속도로 방을 아장아장 걸어다녔읍니다. 그는 의사에게 달려가서 그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매달렸읍니다. 항상 침착하고 냉정한 그 의사가 깜짝 놀라서 내려다보았읍니다. 그리고는 빌을 안아 올리고는 동시에 울고 웃으면서 방을 가로질러 나에게 달려왔읍니다. 그는 "기적입니다!"라고 소리쳤읍니다.

나도 동의했읍니다.

나는 누가 빌에게 병자 축복을 하도록 월터즈 형제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러셀 엠 넬슨, 지역 대표,
전 본부 주일학교 회장.

성찬을 오른손으로 취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어느 손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됩니까?

라헬은 누워서 산고로 죽어 가면서 새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슬픔의 아들" 또는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처한 남편인 야곱(이스라엘)이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아마 그것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반복해서 라헬의 산고와 죽음을 언급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대신에 택한 이름은 *베냐민*이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오른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35 : 16-19 참조) 이스라엘(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열 두번째 아들인 베냐민에게 주어진 특별한 이 이름이 상징해 주었읍니다.

오른손이 더 좋은 것, 혹은 은총을 상징한다는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다시 암시되어 있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태복음 25 : 31-34)

경전의 여러 기사는 오른손의 상징적인 의미에 관한 어느 정도의 배경과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이 상징은 유대인 세계와 기독교 세계의 언어와 기타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라틴어에서 *dexter*(오른편)와 *sinister*(왼편)은 왼편 오른편만 가리킬 뿐 아니라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가진 형용사의 어간이 되었읍니다. 상징적인 몸짓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덧 정부의 선서식과 법정에서 선서할 때에 증언하도록 소환된 증인도 그렇게 하도록 확대되었읍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어느 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의문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sacrament(성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라틴어 어근에서 나왔읍니다 : *sacr*는 "*sacred*"(신성한)를 뜻하며 *ment*는 "*mind*"(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신성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라틴어 *sacramentum*이라는 말로서 이것은 "맹세 또는 엄숙한 계약"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전에 침례탕에서 맺은 성약을 *맹세로써*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신성한 정신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1) 개인의 성약의 상징으로 손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조용한 맹세 (2) 세상의 구세주의 위대한 대속의 희생의 상징인 빵과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손은 논리적으로 다른 어떤 신성한 맹세를 할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오른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영원한 성약과 마찬가지로 성찬 성약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나 손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맺을 수 있고 맺고 있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어느 손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이 의미하는 대속의 희생을 깊이 인식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떤 손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염려할 때가 종종 있읍니다. 교육과 준비와 훈련의 방법으로써 교회의 침례받지 않은 어린이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8세가 될 때 그 성약을 맺겠다는 것을 미리 나타내기 위하여" 성찬을 받습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몰몬교리, 제2집,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6년, 660페이지) 그러므로 그들이 성찬의 상징과 의미에 대하여 훌륭한 느낌과 신성한 정신적 태도를 키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성한 경험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부모는 이 주제를 가정의 밤 공과의 일부로 삼을 수 있읍니다. 그리고 모임 중에 상기시켜 주어야 할 경우에는 조용하게 인내심과 사랑을 갖고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찬을 취한다는 것은 신성한 정신적인 의식이며 따라서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개인적인 것이 됩니다. 나는 성찬 축복문을 읽을 때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성약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독생자를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성찬은 그분에 의하여 시작되었읍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으며 상징물로 빵과 물을 지정하셨읍니다. 나는 오른손을 내밀어 성찬을 취하여 항상 그의 대속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받들어 그를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이것은 매주 안식일에 모든 충실한 성도의 신성한 특권입니다. *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 주셔서 기쁩니다

사뮤엘라 알 호킨스

우리에게 선교 사업을? 남편과 나는 정년 퇴직 연령이 지났으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대회 모임에서 선교 지역에서는 나이 많은 부부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마치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읍니다. ("앞으로 위로 전진합시다." 1979년 4월 연차 대회) 그 결정은 우리로서는 쉬운 것이 아니었으나 마침내 결정을 내렸으며 우리는 자신이 감독과 그 다음에는 스테이크 부장과 접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읍니다. 바로 이 시작의 시점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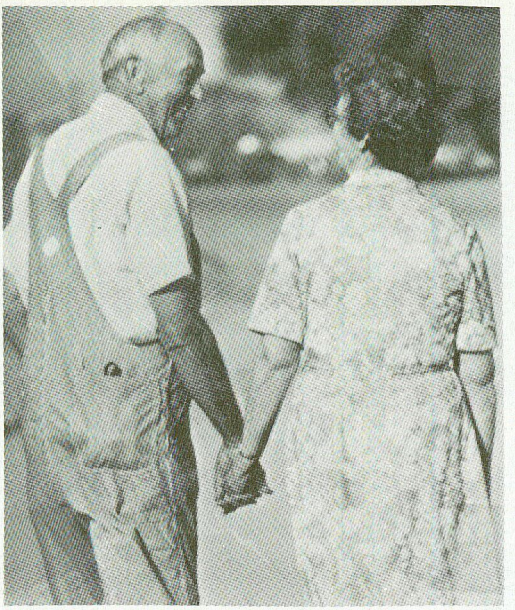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 집에 세를 놓겠다고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어떤 부부가 우리집 문 앞에 와서 그들이 큰 집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들은 복덕방에 전화를 걸다가 어떻게 된 셈인지 전화를 잘못 걸었으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전세를 취급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선교사로 나가려는 부부를 알고 있으며 아마 그들의 집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집 주소를 알려 주었읍니다.

우리는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로 부름받았을 때 몹시 기뻐했읍니다. 우리의 큰 아들이 그 지역에서 이전에 선교사로 봉사했었으므로 우리는 그곳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읍니다.

몇 개월 뒤에 우리는 우리 지역의 지도자와 접견했으며 그는 우리가 선교 지역에서 일한 이래로 어떤 면에서 간증이 자랐는지 물었읍니다. 나는 성령이 임재하실 때의 힘에 놀랐다고 대답했읍니다. 나는 나의 교회 부름과 직업적인 사명을 완수하면서 받은 도움과 영감과 개인적인 계시를 너무나 분명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도자와 함께 앉아서 이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권세가 있었읍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거치른 일을 했고 순간적이고 급박한 기도 이외에는 한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터놓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는 씨를 뿌렸지만 추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님께 의존했읍니다. 부인이 이 교회 회원인 한 젊은 남자가 선교사 토론을 듣는 데 동의했읍니다. 그는 처음의 몇 가지 토론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들었읍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세상적인 슬픔에 휩싸여 그 다음 약속 시간이 되기도 전에 다시 오지 말라는 전갈을 우리에게 보내 왔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다시 가야 한다고 느꼈으나 즉시 가야 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했으며 3주일 후에는 우리가 다음 수요일에 그를 방문하러 가야 한다고 성령이 확인해 주시는 것을 느꼈읍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간을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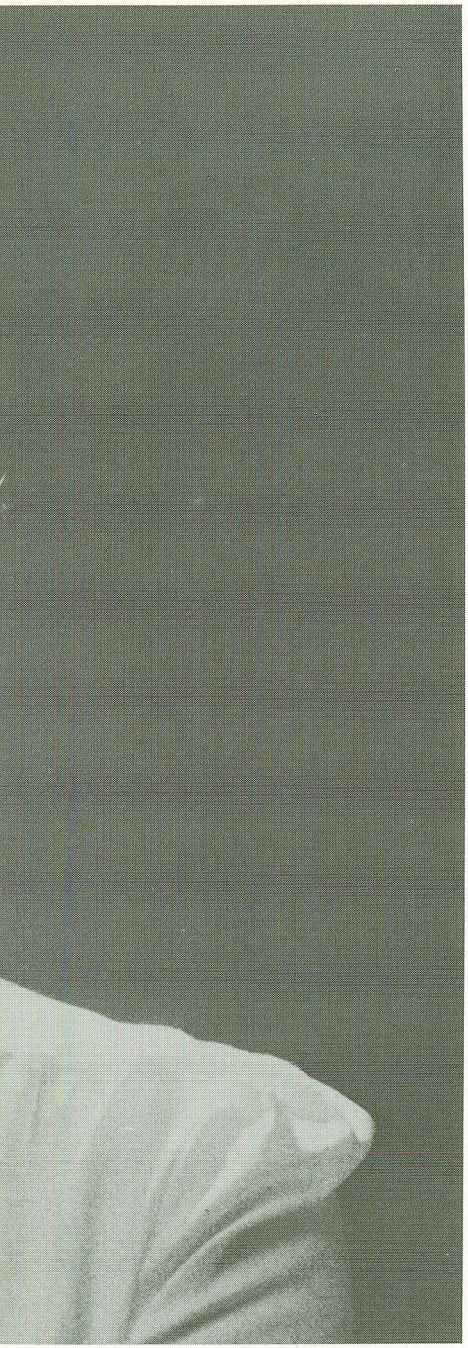
나는 성령이 임재하실 때의 힘에 놀랐읍니다. 우리가 구도자와 함께 앉아서 이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권세가 있었읍니다.

위하여 기도했으며 다시 성령의 지시를 느꼈읍니다. 우리는 수요일 아침은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오후에 우리는 다시 기도했으며 "지금"이라는 긴급한 대답이 왔읍니다.

우리는 즉시 우리의 아파트를 떠났으나 가는 길에 나는 필름 한 통을 현상하기 위하여 가게에 머물었읍니다. 내가 그 필름을 카운터에 놓는 동안 어떤 강한 느낌이 나를 감쌌으며 "지금"이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동안 성령이 거의 마음이 상한 것 같이 느꼈읍니다. 나는 쫓기는 듯이 그 가게에서 나와 우리 차가 있는 곳으로 갔읍니다. 3분 후에 우리는 우리 친구의 문 앞에 서 있었읍니다. 그는 몰몬경을 읽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선교사 토론을 다시 듣고 싶어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 지역의 훌륭한 장로 및 자매들과 친분을 맺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읍니다. 우리 지역으로부터 전근을 떠나게 되어 있는 장로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읍니다. "나는 새 지역에 부부 선교사가 있는지 그곳을 살펴보았읍니다. 거기에 부부 선교사가 있기를 바랐으나 없었읍니다." 그는 정말로 실망했읍니다.

우리는 킴볼 대관장님의 메시지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감사드립니다. 부부에게 선교 사업을?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훌륭하고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읍니다. *



주님의 등불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배울 때 일반적인 것을 배울 때처럼 즉, 독서, 듣는 것, 사색하는 것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똑같은 식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모두 특별한 태도가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게 될 것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소금의 맛은 어떤가요?

내가 총관리 역원이 되기 전에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한 경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한번은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 옆에 앉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강경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내 간증을 전했읍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가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그는 이렇게 반대했읍니다. "선생님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 수 없읍니다!" 내가 굴복하려 하지 않자 법률가인 그 무신론자는 간증 문제에 관하여 아마도 궁극적인 것이 될 질문을 했읍니다. 그는 비웃는 듯이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읍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해서* 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대답하려 했을 때 나에게 높은 학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전달할 수가 없었읍니다.

젊은 선교사 여러분은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한 즉각적인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멸시하는 태도로 대할 때 당황할 때가 가끔 있읍니다. 그런 조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돌아섭니다.(쇠막대와 큰 건물과 조롱을 기억하십니까? 〔니파이일서 8 : 28 참조〕)

내가 *성령*과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자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기도*, *인식*, *신앙*도 똑같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시겠읍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모르시는 겁니다. 만일 아신다면 *어떻게 해서 아시는지*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마도 간증을 현명하게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읍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경험을 했읍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언급했읍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의 첫번째 알림을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깨끗한 예지가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급속한 관념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을 닮게 될 것입니다."(*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6페이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떠올라서 나는 그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선생님이 소금 맛이 어떤지 아시는지 묻고 싶읍니다."

그는 "물론 압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소금 맛을 보셨지요?"

"지금 막 비행기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지요."

나는 "선생님은 단지 소금 맛이 어떤지 안다고 생각하실 따름이지요."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읍니다. "나는 내가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소금 맛이 어떤지 압니다."

"만일 내가 한 컵의 소금과 설탕을 주고 맛보게 한다면 설탕과 소금을 구별할 수 있겠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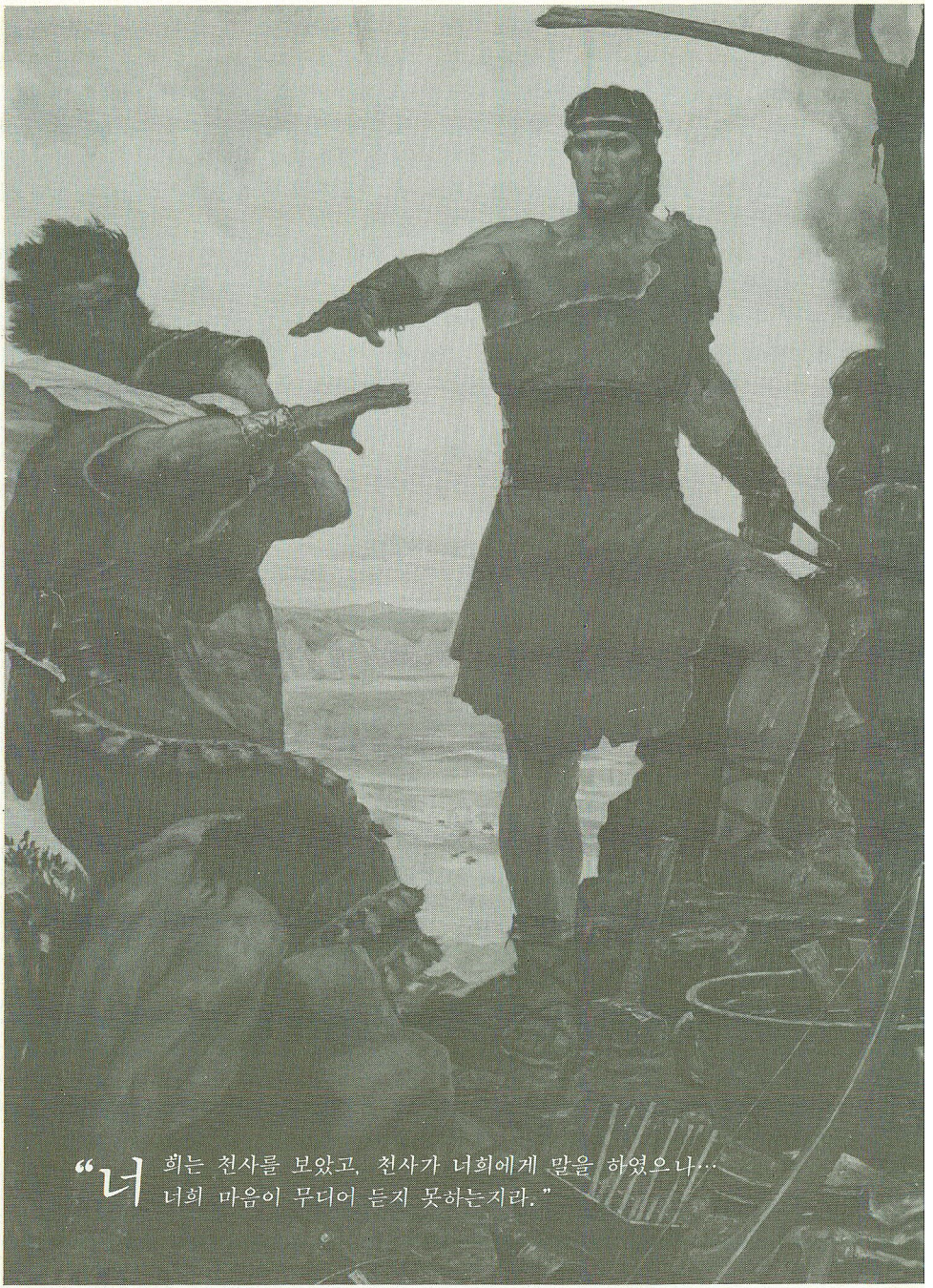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점점 어린애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물론 나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읍니다. 나는 소금 맛이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매일 경험하는 일이며 내가 아는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압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도 소금 맛을 본 적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 맛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더듬거리며 시도해 보았읍니다. "그것은 달지도 시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이러이러하지 않다고만 말했지 이러이러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읍니다."

물론 여러 번 노력했으나 그는 설명하지 못했읍니다. 그는 소금을 맛보는 것같이 그렇게 일상적인 경험도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읍니다. 나는 그에게 한번 더 간증하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그 간증을 비웃고 *정말*로 내가


"너희는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으나…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

안다면 내가 *어떻게* 아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읍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소금 맛을 보았읍니다. 나는 선생님이 소금 맛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로 이 지식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말로는 선생님께 설명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계시고 그는 진실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선생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압니다!"

나는 그가 헤어질 때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선생님이 의지하시는 종교가 필요없읍니다. 필요없어요."

그 경험을 한 이래로 나는 내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로써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한번도 없었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 : 13—14)

말로써만이 아님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을 준비를 갖추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읍니다. 성령이 직접 도와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성령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함이라. (니파이이서 33 : 1)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에서 말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주의깊게 선택하면 말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읍니다. (경전에도 그런 말이 없읍니다.) 경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미묘하고 정화된 영적인 대화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음성으로 설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음성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게 된 후 몰몬경에 있는 한 구절에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 경전에 대한 간증이 무한정 커졌읍니다. 이것은 니파이에 대적하는 레이맨과 레뮤엘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읍니다. 니파이는 그들을 꾸짖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희는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으며, 너희는 시시로 천사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천사가 너희에게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였으나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 (니파이일서 17 : 45)

천사의 음성

니파이는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전하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읍니다. "천사는 성신의 권세로 말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 (니파이이서

32 : 3)

만일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한다면 대화하기 위하여 눈과 귀만 사용하도록 제한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설명한 영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여 순수한 예지가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올 *수 있으며* 이것이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루하고 긴 공부를 해야 하거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또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육신에 관해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들은 모두 우리들에게 추상적으로 나타내졌으나 우리가 전혀 육신을 갖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에게 나타내졌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구원할 수 있는 계시는 우리의 육신도 구원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52 페이지)

작고 고요한 음성

경전에서 성령의 음성은 "크지도" 그리고 "거칠지도" 않다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뇌성도 아니요 큰 소리도 아니었고" "다만 심히 부드럽고 잔잔한 소리요 작은 속삭임 같았으나" "저들의 영혼을 꿰뚫어 가슴을 불붙게 하였으며" (니파이삼서 11 : 3; 힐라맨서 5 : 30; 교성 85 : 6-7)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열왕기상 19 : 12)인 것을 발견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소리치거나 큰 손으로 악수를 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속삭입니다. 성령은 극히 부드럽게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술주정뱅이나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겠읍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에 충분하도록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령이 떠나가서 우리가 찾고 귀기울이며 고대의 사무엘과 똑같은 태도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사무엘상 3 : 10)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은 자주 일어나지 않음

나는 강하고 감동적인 영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그리 자주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의 교화와 교육과 교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권능에 의하여 부름을 받지 않는 한 그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권고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정시키는 위치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가볍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나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런 경험은 조심해서 간직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라고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에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앨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에서 모두 그 신비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

직 하나님께 귀기울여 열의를 갖는 자만이 저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엄격한 명령을 내리셨느니라."(앨마서 12:9)

한번은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께서 여러 선교부장과 그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모두 아내에게 이야기한 적은 한번도 없읍니다. 그 까닭은 만일 내가 신성한 것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신용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출생을 둘러 싼 여러 사건에 대하여 행한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누가복음 2:19 참조)

영적인 것을 강요할 수 없음

배워야 할 것이 또 있읍니다. 간증은 단번에 밀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키가 점점 자라듯이 그렇게 간증도 커집니다. 간증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자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망대로 즉각적인 응답이나 축복을 요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억지로 강요할 수 없읍니다. 억지, 강제, 강요, 압력, 요구 등의 단어는 성령과 관련된 우리의 특권을 설명하는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시기가 되기 전에 콩이 싹이 트거나 계란이 부화하여 병아리를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강제할 수 없읍니다. 성장을 촉진할 기온을 만들고 영양을 주고 보호할 수는 있으나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으며 자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커다란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지식이 성장하도록 두고, 도와 주되 강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인도하는 길로 가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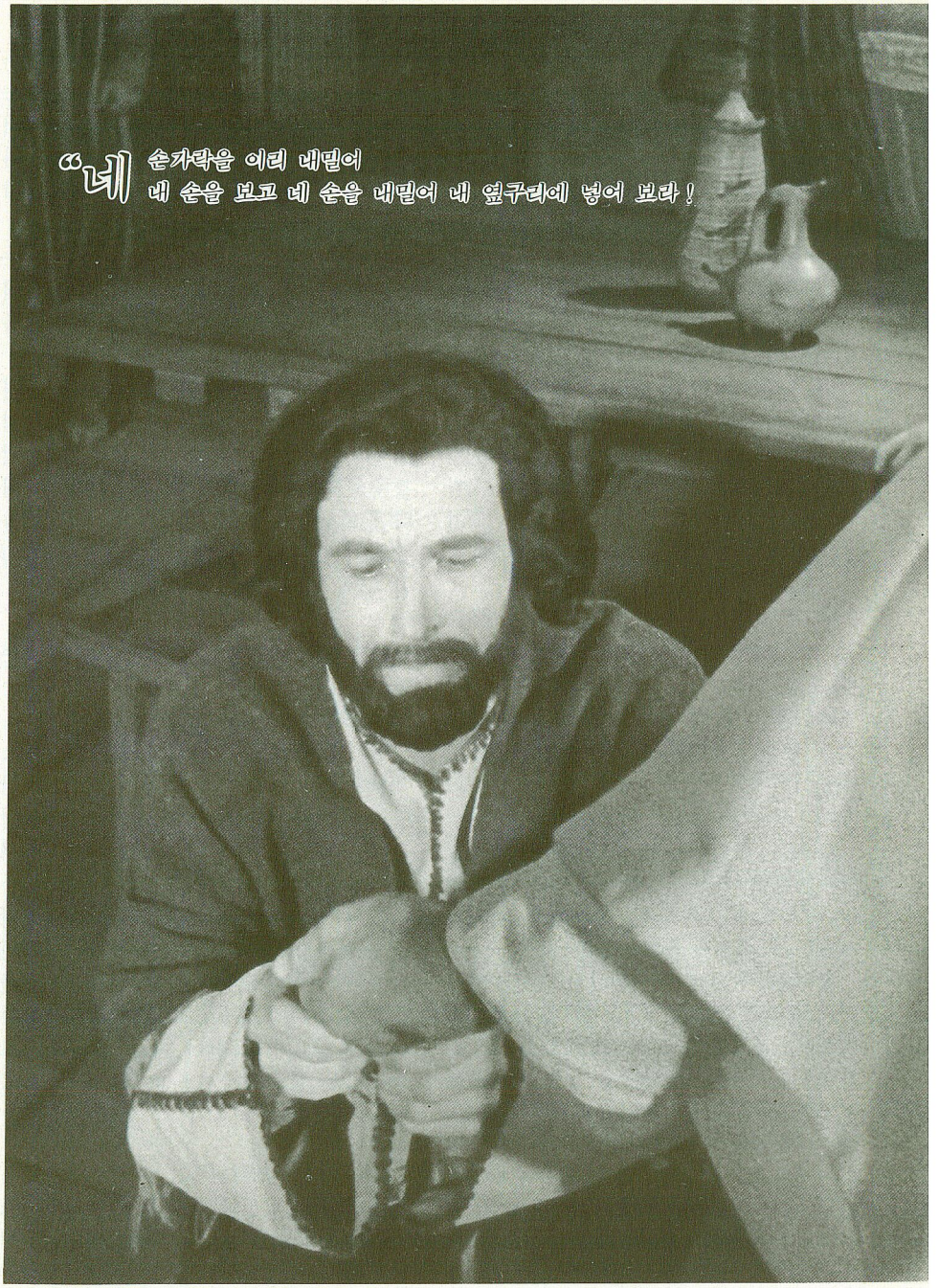
모든 자원을 이용함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면밀히 계획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빛과 지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전에 있는 것을 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계시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읍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받은 영적인 또는 세상적인 예지를 계시가 대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것을 키울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배하는 일상적인 규칙과 규정을 따르는 가운데 평범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규칙과 규정과 계명은 소중한 보호책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 과정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계시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런 계시는 우리가 필요한 지점에 도달할 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힘써 노력하며"라는 권고는 정말로 현명한 권고입니다.(교성 58:27 참조)

나다나엘인가 도마인가

각 사람의 영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말하자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대답했읍니다.

빌립은 "와 보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실제로 가서 보았읍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그는 더 이상 확신시켜 줄 필요없이 이렇게 선언했읍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은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요한복음 1 : 45-51)

도마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랐읍니다. 열 명의 사도가 함께 간증을 했지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키지 못했읍니다. 그는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증거를 요구했읍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한복음 20 : 25)

팔 일 뒤에 주님이 나타나셨읍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직접 보고 만져 본 *다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의미깊은 교훈을 가르치셨읍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요한복음 20 : 25-29)

도마는 주님께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나다나엘과는 분명히 다르게 의심했읍니다.(요한복음 1 : 47 참조) 도마에게 있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었읍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전혀 반대였읍니다. 그는 먼저 믿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읍니다.(요한복음 1 : 51)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함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은 알고 있으나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하나이다."(니파이일서 11 : 17)

여러분의 간증에는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 또한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내게 이르는 자를 불과 성령으로 침례할 것이요, 이는 마치 레이맨인들의 경우와 같으니, 저들이 개심하였을 때 나를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저들을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였으되, *저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9 : 20)

나는 몇 년 전에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먼 나라에서 만났읍니다. 그는 거기에서 1년 동안 일하고 있었읍니다. 그의 첫번째 대답은 다음과 같았읍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읍니까?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전혀 발전하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이었으며 나의 생각은 오히려 그 반대였읍니다. 그가 단 1년 동안에 성숙해진 것과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읍니다. 그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아닌 점진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였읍니다.

어디서 시작하는가

선교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간증을 얻기 전에 어떻게 간증할 수 있읍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읍니까? 내가 그런 간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정직한 것이 되지 않겠읍니까?"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원리를 정말로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간증은 간증을 *전하는 데서 발견하게* 되어 있읍니다! 영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어딘가에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앙의 도약"이 있읍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도약을 하기 위하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경전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람의 영혼은" 진실로 "여호와의 등불"입니다.(잠언 20:27)

자신이 읽은 것이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으로부터 증거를 받는 것은 한 가지 일로써 필요한 시작 단계입니다. *자신이* 간증한 것이 참됨을 가슴 속에서 성령이 확인해 주게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하는 동안에 간증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읍니까? 여러분이 지닌 것을 전할 때 여러분이 지닌 것이 더 큰 것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더는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여 전하였으되, 백성들이 이를 보지 못하여, 믿지 아니하였나니,"

"나 모로나이는……세상에 밝히 전하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라야 증거를 얻겠음이라."(이더서 12:5-6)

담대하게 간증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시험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지지하실 것임

여러분이 겸손하게 정직한 의도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경전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읍니다. 이 성구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백성을 향하여 너희 목소리를 높이라. 내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말해야 할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순간에 너희가 말할 바를 얻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모두 엄숙한 마음과 온유한 정신으로 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주노니, 곧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성신께서 너희에게 오사 너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증거해 주시리라."(교성 100:5-8)

회의론자들은 여러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을 때에 간증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조건 반사를 일으키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며 그 반응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회의론자들은 성령의 방문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줄 신앙, 겸손, 순종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알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 지성인, 실험가에 지나지 않는 사람, 거만한 사람, 불신자, 교만한 사람으로부터 간증이 감추어져 있으며 완전히 보호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읍니까? 그들에게는 간증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하여 신앙의 행위로서 간증하십시오. 이것은 예언자 앨마가 그의 추종자에게 권고하신 실험과 같은 일종의 실험입니다. 우리는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신앙으로써 시작합니다. 앨마서 32장에 있는 그 설교는 시작하는 사람, 초심자 및 겸손히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진리에 대한 증거의 열쇠를 지니고 있읍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증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간증을 전할 *때에만* 여러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 안에 복음의 본질이 있읍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완전한 구현이 아니겠읍니까? 기꺼이 간증을 전하기 전에는 간증을 찾거나 지니거나 증대시킬 수 없읍니다. 간증을 아낌없이 줄 때에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성령이 물러날 수 있음

이제 일단 간증을 받았으면 자신이 받은 권고에 순종하십시오. 나는 선교부장으로서 한 가지 엄숙한 교훈을 배웠읍니다. 당시 나는 총관리 역원이기도 했읍니다. 나는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보좌 한 사람을 해임하라는 성령의 권고를 여러 번 받았읍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기도하는 것 이외에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읍니다. 그렇게 하면 오랫 동안 교회에 봉사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읍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났읍니다. 그를 해임하면 누구를 보좌로 부를까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성령의 권고를 받을 수 없었읍니다. 내 기도는 내가 기도드리는 방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았으며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읍니다. 나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시도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읍니다. 마침내 나는 성령이 명하신 대로 했읍니다. 그러자 즉시 성령의 은사가 되돌아왔읍니다. 그 은사를 다시 받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또한 그 형제는 상처받지 않고 참으로 큰 축복을 받았으며 그의 사업도 즉시 잘 되었읍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음

합당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속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거짓된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읍니다. 거짓 천사가 있는 것과 똑같이 거짓 영이 있읍니다. (모로 7 : 17 참조) 악마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충동을 영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감정에 의한 것이거나 악마로부터의 권고인 것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읍니다.

어떤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해서 교회에서 정립되어 있는 신권 권능에 도전할 권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전염병을 피하는 듯이 피하십시오. 배도한 사람의 모든 교묘한 이야기나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도전에 대하여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은 악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음

주님의 사업에는 위대한 권세 즉 영적인 권세가 있읍니다. 여러분과 같이 교회의 일반적인 회원은 확인에 의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며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읍니다.

옛날에 내 친구 한 사람이(그는 오래전에 별세했읍니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읍니다. 그는 만 17세였으며 그의 동반자와 함께 어떤 오두막집에 멈춰 섰읍니다. 그날은 선교사로서의 첫날이었으며 그 집은 그가 선교사로서 맨 처음 방문한 집이었읍니다. 커어튼으로 가려진 문 뒤에는 회색 머리의 여성이 서 있었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읍니다. 동반자가 그에게 계속하라고 옆구리를 쿡 찔렀읍니다. 그는 겁에 질려 혀가 굳어 있다가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한때 하나님이 인간과 같으셨던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읍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성은 흥미를 느끼고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는 "성경에 있읍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그 여성은 잠시 집안으로 가서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왔읍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어떤 회중을 이끄는 성직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전을 그에게 넘겨 주며 "자,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는 불안하게 앞뒤로 바쁘게 책장을 넘겼읍니다. 마침내 그는 성경을 되돌려 주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것을 못찾겠읍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지 자신이 없으며 가령 있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읍니다. 저는 유타주의 캐쉬 계곡에서 온 가난한 농가의 소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훈련을 많이 받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가정으로부터 왔읍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제 자신의 경비로 2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읍니다."

그는 5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여성이 문을 활짝 열면서 "들어오세요,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감추지 못했읍니다.

이 사업에는 위대한 힘이 있으며 교회의 일반적인 회원은 성령의 지지를 받아 주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읍니다.

말씀드릴 것은 훨씬 더 많이 있읍니다. 나는 기도, 금식, 신권과 권능, 합당함 등 모두 계시를 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함께 연합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합니다.

니파이는 성신과 천사에 관한 위대한 설교를 멈추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더 말할 수 없느니라. 영이 내가 말함을 금함이니"(니이 32 : 7) 나는 내가 가진 말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읍니다. 아마 성령이 여러분에게 장막을 조금 열어 주셨을 것이며 또는 계시 즉, 영적인 대화의 신성한 원리를 확인해 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확인할 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성신의 은사는 너무나 신성하다는 것을 압니다. *

나는
길모퉁이를 돌아갈 때
어떤 강한 힘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느꼈읍니다.

"레 파 웨스트"에서 시작됨

빌립 베노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는 프랑스의 놀만디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자랐읍니다. 그때 미국의 개척에 관한 "레 파 웨스트"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은 모든 소유물을 손수레에 싣고 끌며 대평원을 횡단한 몰몬 개척자들의 신앙과 용기를 설명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부두에서 물고기를 가득 담은 손수레를 끌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때로는 그 나무 수레를 움직이기 위하여 너더댓 사람이 끌어야 했읍니다. 나는 그때부터 몰몬 개척자들에 관한 존경심을 가졌읍니다.

나는 어느 날인가 두 젊은 몰몬이 실제로 우리 집의 문을 두드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읍니다. 그 일은 내가 아직 고등 학생일 때 우리가 프랑스의 남쪽으로 이사한 다음에 일어났읍니다. 이 몰몬은 전혀 개척자같이 보이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머리를 짧게 깍고 면도를 했으며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맸읍니다. 그들은 내가 집회소에서 열리는 영어 교실에 참석하도록 권고했읍니다. 부모님은 참석하도록 허락해 주셨읍니다.

곧 나는 이 사람들도 반드시 육체적인 체력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인하여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들은 이따금씩 우리 가정을 방문했으며 우리 부모님은 처음부터 "사교적인" 방문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으나 나는 장로들에게 그들의 교회에 관하여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했으며 나는 그들의 대답을 한 마디도 빼지 않고 열심히 들었읍니다.

우리 모친은 천주교 신자였으며 부친은 유대인이었읍니다. 그들은 항상 나에게 선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분을 믿으라고 권고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그분을 아는 것 같았읍니다. 나는 그들이 부모와 대화할 때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많이 이해했읍니다. 내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선교사를 비웃거나 교회를 비탄하면 나는 열렬히 선교사를 옹호했읍니다. 나는 당시에는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선교사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내가 고등 학교에 다니는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가정을 방문했으나 부모님은 항상 예의바르게 대하기는 했으나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토론을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읍니다. 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단계를 거쳤읍니다. 우리는 니스로부터 까네로 이사갔으며 마침내 장로들과의 연락이 끊어졌읍니다.

얼마 후에 나는 개인적인 심한 갈등을 겪는 동안 자신이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읍니다. 이번에는 나 스스로가 완전히 주님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를 아시며, 사랑하시며, 나를 굽어보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따뜻한 불꽃같은 느낌과 참된 확신을 느꼈읍니다. 이런 경험을 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편지를 부치러 우체국으로 가다가 두 선교사를 보고 그들에게 달려갔읍니다. 나는 "장로님들이시지요?"라고 외치고 나서 내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 관한 이 훌륭한 느낌에 관하여 말했읍니다. 그들은 내 말을 완전히 이해했읍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형제님께 간증을 전하시는 분은 성신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어난 일과 나의 지적인 아이디어와 영적인 간증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읍니다. 우리는 오랫 동안 이야기했읍니다.

나는 곧 군 입대를 위하여 떠나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선교사들과 회원들 주변에 있고 싶은 열의는 강하게 자랐읍니다. 나는 새로운 복음 원리를 배울 때마다 실행에 옮겼읍니다. 내가 군에 가기 직전에 장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읍니다. "형제님은 몰몬처럼 생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형제님이 완전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간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읍니다.

나는 군에 있는 동안 나의 생각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읍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이 있었으며 나는 교회에 대한 나의 느낌을 깊이 되새겨 보았읍니다. 나는 브리앙꼬의 산악 부대에 배치되었는데 근처에는 말일성도 지부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배운 것을 마음속에 간직했으며 신앙의 씨앗이 자라도록 했읍니다.

제대했을 때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읍니다. 노르망디 출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나는 미국을 방문할 준비를 오랫 동안 했으며 거기에 갈 돈을 저축했읍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갈 수 없게 되었읍니다. 나는 혼자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읍니다. 나는 해변을 거닐면서 생각하기 위하여 노르망디로 돌아왔읍니다.

누구든지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이미 간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어…… 나에게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이곳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그렇지만 안 가면 어떻게 되지? 나는 복음에 관하여 훨씬 많이 배우고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나는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이 여행을 포기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에 관하여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

나는 미국에서 많은 교회 회원들과 가까운 친분을 맺을 기회가 있었읍니다.

마침내 나는 내가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읍니다. 나는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성신이 내 영혼을 밝혀 주고 의심을 말끔히 없애 주는 것을 느꼈던 그 훌륭한 느낌을 잊을 수 없읍니다. 그 전에 나는 왜 한때 복수 결혼이 실시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읍니다. 콜로라도주와 유타주 사이의 어느 곳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나는 복수 결혼을 실행했던 사람들에 관한 눈으로 보이는 광경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시현을 보았읍니다. 또한 나는 어떻게 그런 것이 순수한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것이 그렇게 분명해졌읍니다.

마침내 나는 워싱턴주의 시애틀 근처에 있는 몇 개의 섬을 방문했읍니다. 그곳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는 열흘 동안 몰몬경을 공부했읍니다. 간증이 계속해서 자랐읍니다. 프랑스로 돌아갈 시간이 왔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침례받으리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집으로 돌아온지 며칠 후에 선교사들로부터 어떤 공과를 가르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읍니다. 그 구도자는 과학도였는데 내가 그와 같은 주제를 공부하고 있을 때 직면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은 방법을 설명해 주었으며 우리가 그곳을 떠날 때 그는 만족하고 행복한 것같이 보였읍니다.

며칠 후에 선교사들이 나에게 전화를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나는 이렇게 자문했읍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나는 여기서 다른 사람이 침례를 받아들이게 해줄 수는 있으나 나 자신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런 시간은 너무 오래 지속되었어!" 나는 간증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금식하고 기도했읍니다. 나는 하루 밤을 꼬박 새면서 나의 이 간증을 인봉해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했읍니다. 마침내, 이른 아침에 나는 평화롭고 포근한 느낌으로 가득 찼읍니다. 나는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나는 선교사를 만나러 가는 길모퉁이를 돌아갈 때 어떤 강한 힘이 나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읍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에 했던 것처럼 시속 100킬로미터의 강풍에 맞아서 걸어가는 것 같았으며 이번에는 그 힘이 훨씬 더 강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바람"이었읍니다. 나는 막 그 힘에 대항하여 전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려 했읍니다. 나는 이 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했읍니다.

나는 그 진리가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느꼈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힘에 대항하여 싸우시리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나는 교회 문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평범한 교회 문이었지만 그것을 열기 위하여 나는 온 힘을 다하여 당겨야 했읍니다. 나는 교회에 들어가서 몇몇 회원들을 보고 그들의 영을 느꼈으며, 원수의 힘은 부서지고 사라졌읍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그 아늑한 화평을 느꼈으며 며칠 뒤에 침례받고 확인받을 때 그것을 더욱 강하게 느꼈읍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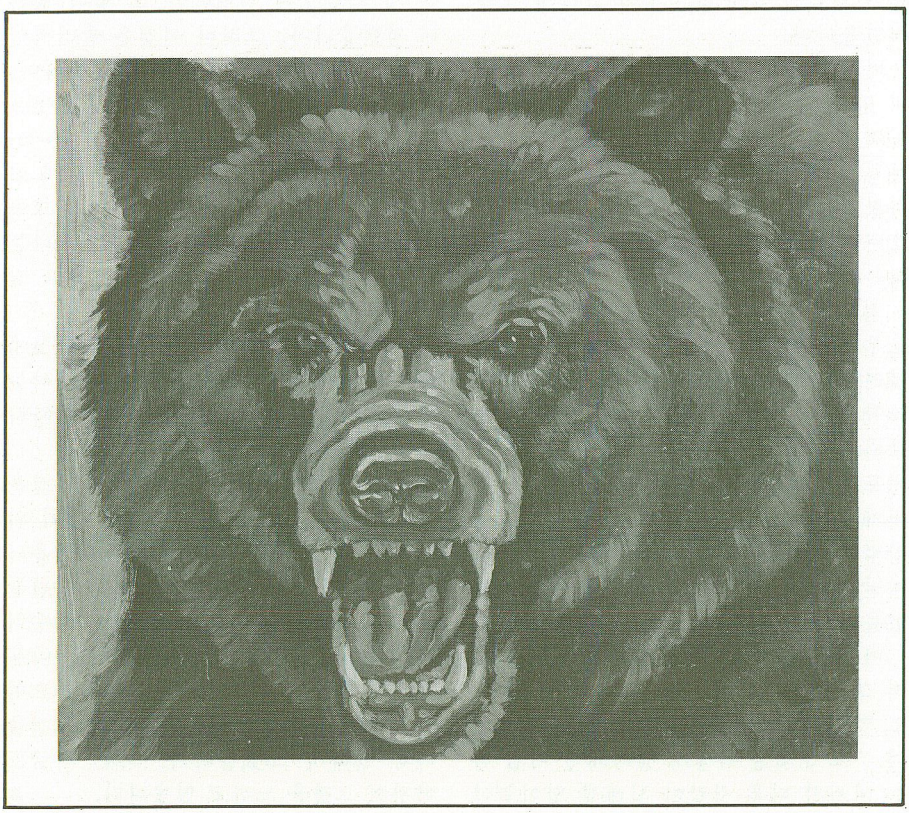
곰

발자국

딘 엘 라슨 장로

나는 유타주 북쪽의 조그마한 마을 하이람에서 자랐는데 이 마을의 이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형인 하이람 스미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입니다. 내가 자랄 때 하이람의 인구는 약 1,500명이었읍니다. 이런 농촌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과 소를 기르는 헛간과 동물을 키우기 위한 목장과 큰 마당과 그 이외에 농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가질 수 있었읍니다. 우리는 가족이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자급 자족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학교 교사로서 우리 부친이 받는 적은 봉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9명의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우리는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므로써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읍니다.

우리의 식량 공급에는 대개 사슴 고기



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부친과 형들이 늦가을 대개 10월쯤인 사슴 사냥 기간에 우리를 위하여 제공했읍니다. 사슴 사냥은 우리의 냉동 저장실에 들어갈 고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매우 신나는 모험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중요한 행사였읍니다. 가족 가운데 소년과 어른 남자들 그리고 때로는 여자들까지도 산에 가서 며칠씩 야영했읍니다. 그 야영도 사냥 못지 않게 해마다 이 일을 즐거운 행사로 만들어 주었읍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의 만년에 들어서서 사냥에 대한 열정이 줄어든 지금도 나는 공기가 청량하고 주변이 새로 떨어진 낙엽의 냄새로 가득 찰 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에서 그렇게 보내던 날을 가장 흐뭇한 추억으로 회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읍니다.

나는 결혼하고 와이오밍의 빅혼베이슨에서 나 자신의 교사로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매년 가을 사슴 사냥 기간에 산으로 가는 습관은 계속되었읍니다. 부양할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겨울철 식량 공급원으로서 사슴과 고라니 고기를 첨가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와이오밍의 산악 지대는 내가 젊은이로서 많은 시간을 보낸 유타의 산보다 더 원시적이고 광대했읍니다. 그곳은 나처럼 야영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살기에 매우 좋은 장소였읍니다.

와이오밍에서의 그런 사냥 기간 중에 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 경험을 했으며 그 이래로 그 교훈을 늘 기억해 왔읍니다. 그 일은 날씨가 평년과는 좀 별다른 해에 일어났읍니다. 일반적으로 9월 말이면 내리던 이른 눈이 오지 않았었읍니다. 사냥 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중순까지도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이 쨍쨍한 맑은 날씨였읍니다. 사슴과 고라니는 더 높은 산악 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냥꾼들이 다가가기가 더 어려웠읍니다.

마침내 그 사냥 절기 후기에 눈이 내렸으며 나는 친구와 함께 몬타나와 와이오밍 경계선과 가까운 빅혼마운틴에 가서 마지막으로 고라니를 찾아 낼 계획을 세웠읍니다. 우리는 그 친구의 사륜 구동차를 타고 리틀 빅혼강이 시작되는 해발 2,800미터 지점까지 올라갔읍니다. 새로 내린 눈이 거의 50센티미터 깊이로 땅을 덮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아침의 첫 햇살이 동녘 산봉우리 넘어로 비치기 시작하자마자 사냥을 시작했읍니다. 친구와 나는 서로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했으며 그날 늦게 다시 만날 지점을 좀 떨어진 곳에 정했읍니다.

나는 우리 차를 둔 곳 근처의 작은 시냇물을 건너서 반대 편 경사지의 숲으로 들어가다가 새로 내린 눈 위에서 선명한 발자국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곰의 발자국으로서 굉장히 컸읍니다. 그 발자국은 나에게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읍니다. 와이오밍의 수많은 산악 지대에서 곰은 드물지 않았으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살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빅혼마운틴에는 곰이 드물었으며 이 새 발자국을 갑자기 보게 되자 내 마음은 무언가 흥미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찼읍니다. 나는 그때까지 한번도 곰 사냥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사실은 한번도 곰 사냥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도 없었읍니다. 곰의 고기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곰은 나의 친구나 나에게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었읍니다. 만일 그 곰이 아직 그 근처에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할 가능성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발자국을 살피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생겼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했읍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쓸 곰 가죽 융단을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읍니다. 그 발자국이 내가 가려 했던 방향과 거의 일치했으므로 나는 그 발자국을 따르기로 결정했읍니다.

약 백 미터 갔을 때 핏자국과 사슴 털이 함께 눈에 흩어져 있는 곳에 도달했읍니다. 나는 그 곰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 날 아침 그 장소에서 사슴을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읍니다. 그 곰이 나뭇 가지 사이로 또한 소나무와 전나무 숲으로 사슴 시체를 들고 가기도 하다가 끌고 가기도 했으므로 그 흔적을 따라 가는 것은 쉬웠읍니다. 그 숲 속에서 그 사슴을 발견했읍니다. 그 사슴의 머리와 뿔이 넘어진 나무의 가지가 교차된 곳에 걸렸으며 그 곰은 그것을 빼내기 위하여 머물러 있지 않았읍니다. 아마 내가 그곳에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았읍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 곰의 발자국을 따라 가다가 심한 경사지를 기어 올라갔는데 덤불이 밀집해 있어서 전진하기가 더욱 어려웠읍니다. 나는 총과 가죽 멜빵을 어깨에 걸고는 그곳을 기어 오르기 위하여 손과 발을 모두 이용했읍니다. 몇 걸음 갈 때마다 숨을 돌리기 위하여 멈추고는 잠시 쉬어야 했읍니다.

이렇게 쉬다가 한번은 나 자신을 돌이켜 보고 내 입장을 평가해 보았읍니다.

덤불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8내지 10미터 이상 떨어진 것은 정확하게 쏘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나는 만일 내가 곰과 마주친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읍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는 동안 나는 매우 흥미있는 느낌이 나를 휩싸는 것을 느꼈읍니다. 나는 피부가 얼얼해지는 경험을 했으며 목 뒤의 머리카락이 빳빳하게 일어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나는 내가 굉장히 위험한 입장에 있으며 즉시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읍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나는 벌떡 일어나서 땅이 좀더 확 트인 곳으로 언덕을 내려갔으며 비로서 그곳에서 내가 지형지물을 좀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읍니다. 그 곰을 추격하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없어졌으며 그날 친구와 함께 그 산에 갔던 목적 즉 사슴을 사냥하는 일을 수행하기로 했읍니다.

나는 그 후로 지금까지 종종 그때의 경험을 돌이켜 보았읍니다. 때때로 나는 신나는 일이나 모험을 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같은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읍니다. 이런 기회에 나의 육체적인 또는 영적인 복지에 대한 위험이나 위협이 따를 때는 언제나 와이오밍의 산에서 그날 나에게 왔던 것과 똑같은 경고의 신호와 느낌을 받았읍니다. 그것은 항상 리틀 빅혼의 언덕에서 경험했던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으나 쉽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읍니다. 나는 언제든지 상징적인 의미의 "곰 발자국"을 볼 때는 가슴에 뚫고 들어오는 양심의 신호를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배웠읍니다. 이런 신호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일과 곤경으로부터 우리를 구

해 줄 수 있었읍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성장하여 성공할 전망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의 덤불로 유혹하려는 수많은 "곰 발자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읍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처음 볼 때는 비교적 해가 없고 죄도 안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읍니다. 이런 것은 거의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성스러운 우리 가정에서도 접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활자, 신문, 잡지, 서적에서 나타날 수 있읍니다. 그 중 어떤 것은 사진이나 삽화가 수반된 도해의 형태를 취합니다. 어떤 것은 음악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각에 침투하며 또 어떤 것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포함하여 현대의 모든 복잡하고 정밀한 전자 음향 및 시각적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무분별하게도 부도덕한 행위로 이끄는 "곰 발자국"을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몽과도 같은 마약 남용 및 중독의 세계로 가는 "곰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읍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몬타나주의 광야로 친구와 함께 큰 사냥을 간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사냥꾼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큰 곰을 만났는데 그 중 한 사람이 곰에게 총을 쏘아서 상처를 입혔읍니다. 그 거대한 짐승은 화가 나서 사냥꾼들에게 덤벼들었읍니다. 그 중 한 사람은 공포에 질려 목숨을 건지려고 결사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근처에 있는 작은 나무의 낮은 가지로 기어 올라갔읍니다. 그 나무는 그 사람의 체중을 받쳐 주고 그 곰의 힘센 앞발과 발톱이 닿지 않는 곳에 그를 보호해 줄 만큼 크지가 못했읍니다. 그의 친구가 곰을 죽일 수 있게 되기 전에 그 곰이 그 사냥꾼에게 매우 심한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양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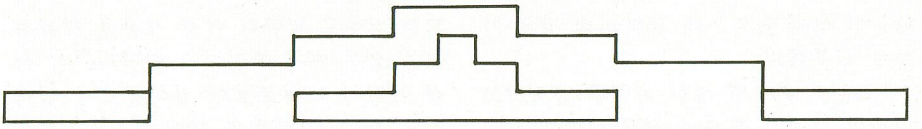
조금 전에 내가 말한 상징적인 "곰 발자국"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반드시 위험한 곳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위험 가운데 어떤 것은 영성과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어떤 것은 참된 행복과 자부심에 돌이키기 어려운 심한 상처를 입힙니다. 의도적으로 "곰 발자국"을 따르면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읍니다.

나는 경험을 통하여 "곰 발자국"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읍니다. 성령의 권고를 통하여 오는 경고의 신호에 응하십시오. 우리가 상황을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보호력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땅으로 피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곰 발자국"을 따라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흥분과 즐거움보다 더욱 소중한 마음의 안전과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길을 막으려고 애쓰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데스산맥 인디언의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

커크 매글비



지구상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에 관해서 이야기해 왔다. 길가메쉬에 관한 바빌로니아의 서사시와 데우칼리온 과 피라에 관한 희랍 신화가 그 두 가지 예가 된다. 웨일즈나 인도같이 다른 문화에서도 노아에 관한 성경 기사와 유사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창세기 6—8; 모세서 7:38—45; 이더서 13:2; 앨마서 10:22 참조) 이런 이야기들은 상세한 내용에서 상당히 다르며 지역적으로 수많은 변화를 보이지만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 인간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스린다. (2) 전세계적인 홍수가 죄인을 멸하고 지구를 깨끗이 한다. (3) 한 의로운 가족 또는 무리가 새롭게 개선된 인간 생활을 시작하도록 목숨을 건졌다.

그러므로 아메리카 인디언이 그들의 신성한 구전 가운데 홍수 이야기를 간직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쪽의 레이크 후론과 브리티쉬 콜럼비아로부터 남쪽의 레이크 티티카카와 파타고니아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인디언은 고대 홍수에 관하여 그들 자신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해 왔다. 창세기 기사와 가장 가깝게 연관되는 것 같은 이야기는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로부터 나왔으며 가장 재미있고 매력이 있는 인디언 이야기 가운데 일부는 남 아메리카의 안데스산맥으로부터 왔다.

이런 초기의 인디언 홍수 이야기의 자료는 대부분이 처음 이 지역에 방문하여 토착 전설을 기록한 천주교 신부 및 탐험가들의 기록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 사람들은 인디언 이야기에서 악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 잘못과 부정확한 점을 즉시 지적했으나 대개는 잉카와 그 이외의 종족에 관한 안토니오 데라 칼란챠의 말에는 동의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기록 방법인 퀴포스와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구전으로 보존하는 여러 행사 등으로 방주와 홍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15년 동안 페루에 살며 자신의 계산으로는 60번 이상 안데스산맥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페르난도 데 몬테시노스라는 저자는 잉카 사람들이 말한 홍수의 연대까지 계산하기에 이르렀다. 몬테시노스에 의하면 그들은 두번째 태양 또는 천지창조 후 2천년이 되기 340년 전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것은 천지 창조 후 1660년 또는 잉카의 연대에 의하면 기원전 2340년 경의 일이었다.

안데스산맥의 인디언은 홍수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 ○츄아 언어에 대한 초기의 한 권위자는 1608년에 그들이 홍수를 "대홍수"를 뜻하는 "로클레이 파챠쿠티"라고 한다고 기록했다. 또 다른 작가는 그 자신이 인디언의 혈통이 섞여 있었는데 1500년대 말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은 홍수에 대한 기억은 간직하고 있지만 그들이 홍수가 있은 다음에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그 홍수를 야코파챠쿠티라고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벌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군인이며 역사가인 페드로 살미엔토 데 감보아는 1572년에 기록하면서 또 다른 이름을 적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의 하나님이 대홍수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지구를 변형시킨 물"이라는 의미로 우노 파챠쿠티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60일 낮과 밤 동안 비가 내려서 모든 생명체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홍수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로 굉장히 존경받던 연대 기록가인 페드로 데 시에자 데레온이 전해 주었다. 그는 수년 동안 안데스 지방 전역을 여행하면서 원주민의 언어와 풍습에 익숙해졌는데 그의 서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에 속하며 잉카 제국의 기사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이 이야기해 준다. 시에자는 1550년에 그가 방문한 대부분의 인디언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던 고대 홍수에 관하여 널리 퍼져 있는 신앙을 요약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백성들은 잉카 제국이 있기 오래 전인 옛날에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굉장한 폭풍우와 홍수가 내려서 대양이 그 경계선과 자연적인 경로를 넘쳤으며 물이 지구를 가득 채워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한다. 물이 창궐해서 모든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덮었다…… 산악 지대의 또 다른 주민들과 심지어는 낮은 지대의 주민들까지 작은 배 또는 방주로 탈출한 여섯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빠져 죽었다고 말한다. 이 여섯 사람이 그때로부터 살아왔으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낳았다.…… 모든 백성이 모두 이 이야기를 확인하며 그것에 관하여 필자가 기록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은 이것을 의심하면 안된다."

시에자가 기록한 기사와 비슷한 것을 크리스토발 데 몰리나가 1572년에 크즈코로부터 기록했다. 그는 잉카 백성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홍수에 대하여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세상의 가장 높은 꼭대기 위로 물이 넘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 드럼 통에서 살아남은 한 남자와 여자를 제외하고는 살아남은 것이 없었다."

아벤다노라는 천주교 신부가 홍수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인디언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의 이전의 믿음과 관습에 관하여 언급해야 했다. 그는 설교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잉카 백성들은 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 없었으며 그들의 역사가들이 그들의 퀴포스(그들의 기록 방법)에서 구전으로 간직하고 있는 옛날 일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400년 내지 500년 이전의 것만 기억하며 그 이전

의 것은 푸룬파챠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라는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잠기게 한 홍수만 기억하며 모든 사람이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 …… 인디언들은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로클라이 파챠쿠티라고 말한다."

안데스의 홍수 전설의 특성으로 보이는 두 가지 상세한 내용이 가끔 이야기된다. 이 이야기는 이 지역과 일부 다른 지역의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물 위로 떠오른 산 꼭대기와 자기 주인에게 임박한 재난을 경고하는 동물의 이야기이다. 이 두 이야기가 모두 저자인 버나브레 코보의 기록에서 설명하고 있다.

"쿠즈코 지방인 앙카스말카도의 인디언은 다음과 같은 전설을 갖고 있다. 그들은 홍수가 시작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양과 비슷한 이 땅의 라마스라는 짐승이 굉장한 비탄에 빠져서 먹지를 않았으며 밤에는 별만 쳐다보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목자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한 끝에 왜 그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주인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며 상의하고 있는 일단의 상좌를 보라고 대답했다. 목자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여섯 명의 아들과 딸에게 이 이야기를 했으며 그들은 식량과 가축을 가능한 한 많이 모으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확보한 식량을 가지고 앙카스말카라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물이 불어나서 지구를 덮자 그 산 꼭대기가 떠올라서 물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한다. 물이 가라앉아서 다시 한 곳에 모이자 그 산 꼭대기가 내려와서 다시 그 전에 있던 장소에 앉았으며 그 홍수 때 살아 남은 목자의 자녀들로부터 이 도의 주민이 다시 생겨났다."

두번째 이야기는 연대 기록자인 프란시스코 다빌라가 1598년에 기록한 재미있는 저서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옛날에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 인디언이 그의 라마를 좋은 목장에 매어 두자 그 라마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5일 이내에 바다가 불어나서 온 땅을 덮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빌카코토 산 꼭대기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 인디언은 그의 소유물을 등에 지고 라마의 고삐를 끌면서 그 산 꼭대기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동물과 새가 득실거리는 것을 보았다. …… 물이 불어났지만 이 발카코토 산 꼭대기만은 물에 잠기지 않았다. …… 마침내 그 물이 너무나 높이 불어나서 일부 겁먹은 짐승이 거의 물에 빠질 지경이 되었다. 예를 들면 여우가 물 가까이 있다가 꼬리를 물 속에서 휘저었는데 그 때문에 여우 꼬리의 끝이 검은색이 되었다. 또한 5일이 지나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으며 바다가 그 이전의 장소로 돌아와서 그 이전보다 더 낮아졌으며 이 인디언을 제외하고는 온 땅에서 사람이 없어졌다."

안데스의 홍수 전설 가운데는 다시는 지상에 대홍수가 없으리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징으로서 무지개 이야기가 들어 있다. 스페인어 저술 가운데도 이 구전에 관하여 적어도 두 가지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1586년에 기록된 카벨로 발보아의 다음 이야기는 아얄 형제들

친구가 친구에게

드웬 제이 영
본부 초등협회 회장

우리 아버지가 빔보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을 때 나는 만 여섯 살이었읍니다. 빔보는 조그마한 흑백의 알록달록한 애완용 강아지로서 너무나 작아서 아버지의 외투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읍니다. 강아지가 있어서 재미는 있었으나 일거리가 생겼읍니다. 우리 형인 앨런과 나는 매일 우리 강아지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는 책임을 맡게 되었읍니다. 빔보가 자람에 따라 빔보를 목욕시키는 것도 우리 일이 되었는데 목욕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항상 우리도 이 강아지 못지 않게 물에 젖었읍니다. 우리는 이 강아지를 사랑했으며 가족처럼 대했읍니다.

빔보는 4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많은 경험을 했읍니다. 어느 겨울에 우리 형이 성홍열에 걸렸읍니다. 당시에는 전염병을 치료하는 약이 요즘처럼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병이 있는 동안 아무도 집을 나설 수 없었읍니다. 아버지는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3주 동안 할아버지 댁에 계셨읍니다. 빔보를 포함하여 나머지 우리 가족은 집에만 있어야 했읍니다.

창문에 격리 표지가 붙었으며 의사 이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읍니다. 어머니가 의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문을 열 때마다 빔보는 밖으로 뛰어나갔읍니다. 그러면 어머니나 내가 한길로 그를 쫓아가서 그를 다시 그의 "감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 병을 아무에게도 전염시키지 않게 했읍니다. 나, 어머니, 빔보 중에서 누가 그 격리 기간을 가장 싫어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는 어느 봄날 우리는 빔보가 뒤뜰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쭉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성홍열에 걸렸나?*라고 생각했읍니다. 나는 수의사에게 가는 동안 빔보가 죽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수의사는 그 개가 독약을 먹었으므로 며칠 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나중에 빔보를 집으로 데리고 올 때 사랑과 관심을 보였으며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는 병이 나았읍니다.

그 다음 여름에 우리는 몇 달 동안 산에 있는 여름 별장에 머물었읍니다. 빔보는 우리와 함께 가서 숲 속을 달리고 다람쥐를 쫓아가는 것을 좋아했읍니다. 어느 날 그는 꼬리를 두 다리 사이로 잔뜩 말아 넣고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그의 얼굴은 긴 수염같이 보이는 것으로 가득 덮여 있었읍니다. 그것은 고슴도치 가시였읍니다. 그 가시가 입 안에도 있었읍니다. 우리는 빔보를 담요에 잘 싸서 옆집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머물고 있었읍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가시를 빼냈읍니다. 다시 나는 우리 강아지가 부작용 없이 회

복 되도록 기도했읍니다. 우리는 빔보가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바로 그 다음날 다시 고슴도치를 발견했으며 우리의 마음씨 좋은 이웃 집 의사에게 또 가게 되었읍니다. 그 다음부터는 빔보가 고슴도치를 멀리 했읍니다.

우리는 빔보를 돌보면 돌볼수록 더 그를 사랑했읍니다. 그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가운데 하나가 되었읍니다. 나는 사랑하고 돌보고 또한 그 보답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강아지가 있는 것이 좋았읍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대하든지 언제나 컹컹짖고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맞이했읍니다. 나는 그로부터 참된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웠읍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이웃과 우정을 쌓는 동안 친구를 *갖기* 위해서 내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빔보를 돌보는 데 시간이 걸린 것과 똑같이 친구들에게 정말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시간이 걸렸읍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했읍니다. 집에 와서 같이 놀자고 전화하는 것이 그들을 기쁘게 해주었읍니다. 나는 우정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할 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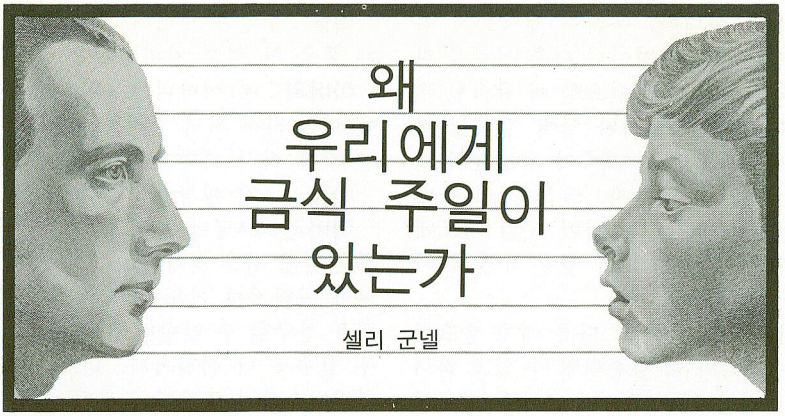
학교에서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읍니다. 나는 학교에서 우리 반의 야구 팀이나 다른 활동에서 맨 처음 선발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괴로워했던 가를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경험으로 인하여 내가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는 자기 차례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읍니다.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새로운 학생이 교실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들이 환영받는 느낌을 갖고 기뻐하게 해줌으로써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지금 나는 교회 본부 초등협회 회장으로서 온 세상에 많은 친구를 사귈 기회를 가졌읍니다. 볼리비아에 있는 초등협회 회원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스페인 말은 몰랐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꼈읍니다. 또한 여러분에 대한 지도자의 사랑과 또한 지도자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느꼈읍니다. 일본에 있는 친구들은 또 다른 말을 쓰고 있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읍니다.

사랑하는 것은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교성 59 : 5,6)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친절한 행동을 하고 관심을 보이며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간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과 가족과 친구와 애완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



왜 우리에게 금식 주일이 있는가

셀리 군넬

금식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 한 소년과 아버지 사이의 금식에 관한 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여러분도 갖고 있을 일부 의문에 대한 답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아들 : 왜 우리에게는 금식 주일이 있지요? 금식이 *뭐예요?*

아버지 : 금식은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금식하심으로써 직접 모범을 보이셨거든.

아들 : 저는 아무 것도 안 먹고 안 마시고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 분명히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린이가 금식하는 것을 바라시지않아. 네가 충분히 나이가 들고 금식하고 싶어하게 될 때 한 끼를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단다.

아들 : 저는 아직도 왜 금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 우리가 금식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경전에서 금식에 관한 것을 읽을 수 있지. 몇 가지 훌륭한 구절을 말해 주겠다. 출애굽기 34 : 28, 마태복음 4 : 2과 6 : 16-18, 힐라맨서 3 : 35, 교리와 성약 59 : 12-14

또 다른 이유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란다. 우리는 금식함으로써 절약한 돈을 금식 헌금으로 내고 그 기금은 충분한 음식이 없는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단다.

금식은 또한 자제심을 키우는 한 가지 방법이야. 우리는 어떤 것을 언제 먹을지 통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또 다른 것에서도 훨씬 더 통제력을 발휘하게 될 거야. 이것이 금식의 축복 가운데 하나란다.

아들 : 우리는 언제 금식합니까? 매주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요.

아버지 : 매달 첫째 일요일에 특별한 대회가 없는 한 항상 그날이 금식 주일이 된단다. 금식 주일은 또한 우리가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 간증을 하는 시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매우 가까이 계시는 것 같단다. 너는 그것이 우리가 금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아들 : 그럼요. 저는 간증 모임을 좋아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느끼게 해줘요. 그렇지만 우리는 금식주일에만 금식할 수 있나요?

아버지 : 아니야.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 또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특별한 축복이 필요할 때 금식할 수 있단다. 캐시 아줌마가 암에 걸렸을 때가 생각나니? 모든 가족이 숙모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지. 숙모는 또 특별한 축복도 받았지.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숙모가 받은 수술과 치료가 성공했단다.

우리가 금식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으며 우리 생활에서 그분의 인도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위한 것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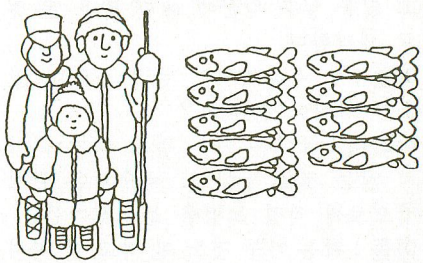
아들 : 우리는 얼마나 오랫 동안 음식과 물을 안 먹고 지내지요?

아버지 : 네 어머니와 나는 24시간 동안 또는 하루 저녁 식사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식사 때까지 금식한단다.

아들 : 그건 굉장히 긴 시간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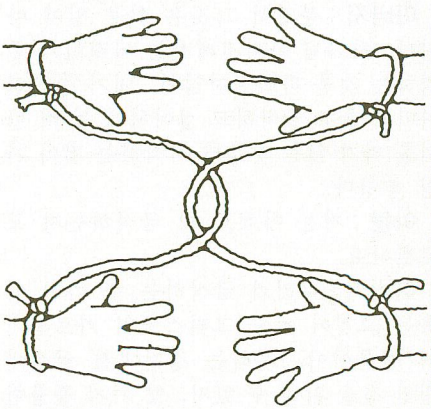
아버지 : 그렇단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온전히 금식할 힘을 간구할 수 있단다. 물론 금식을 자주 할수록 더 쉬워지지. 너도 기도하고 실천함으로써 똑같이 금식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

얼음 낚시



어떤 소년이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얼음 낚시를 하러 갔읍니다. 그들은 모두 아홉 마리의 고기를 낚았읍니다. 아버지는 전체의 3분의 1을 잡으셨읍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2배를 잡으셨읍니다. 그 소년은 몇 마리를 잡았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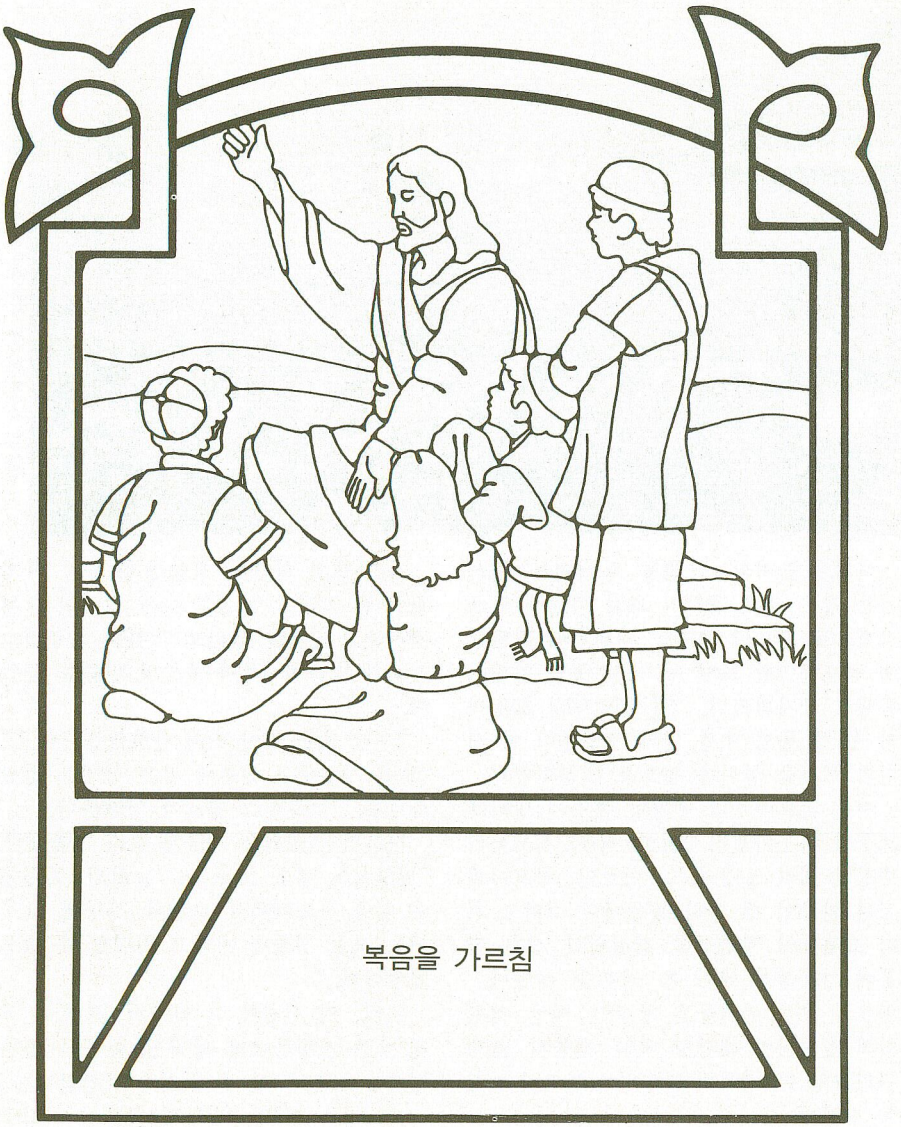
매듭으로 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하여 친구 한 사람과 80센티미터의 끈 두 개가 필요합니다. 끈 한 개를 이용하여 친구의 두 손목을 느슨하게 연결합니다. 두번째 끈으로 첫번째 끈 위로 돌려서 자신의 두 손목을 느슨하게 연결합니다. 끈을 끊거나 묶은 것을 풀지 않고 또한 손목을 묶은 고리를 빼지 않고 친구와 여러분은 묶은 것을 풀 수 있나요? *

"구세주의 사랑"

색칠하기



복음을 가르침

신정 와드 예배당 준공식 (부산 스테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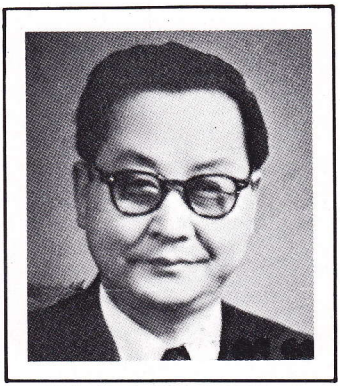
부산 스테이크는 7월 30일 오후 1시부터 울산에 있는 신정 와드 예배당 준공식을 가졌다. 대지235평에 건평236(1. 2,3층 지하실 포함)평의 3층 건물인 신정 와드는 울산 지역의 회원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날 식장에서 민 혜기 부산 스테이크 부장은 "교회 건물이 좋다고 회원들의 신앙이 훌륭한 것은 아니고 초대 교회의 다락방 집회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였다.

또한 민 혜기 스테이크 부장은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건축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끊는 신권 지도자들

준공된 신정 와드 예배당

고 김 호직 박사 제24 주기 추도식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의 문을 두드리는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망우리 고 김 호직 박사의 묘소에 서울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제24주기 추도식을 가졌다.

홍 무광 북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모임에서 한 인상 장로와 이 호남 장로가 영적인 말씀을 하였다.

이 두분은 한국의 신권 지도자들이 그분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여져서 회원들을 열심히 가르치도록 노력할 것과 생전에 김 박사가 보여 준 모범을 기억하여 모두 하나가 될 것을 강조했다.

북 스테이크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 "예수께 오라"를 합창으로 불러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더해 주었다.

이날 개회 기도와 폐회 기도는 최 욱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과 박 재암 영동 스테이크 부장이 각각 맡았으며 특히 20여년만에 한국을 방문한 와델 형제와 정 대판 형제도 참석하였다. *